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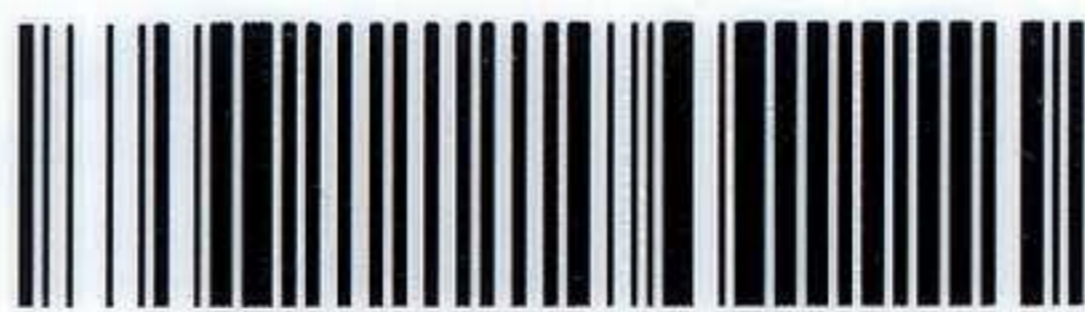
요약집

2000 경기도 정책백서

2000.1.1~2000.12.31



 경기도행정자료실



B00000021927



경기도



ISO 9001 인증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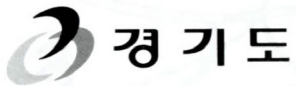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71-6410000-000111-10

요약집

2000 경기도정백서

2000.1.1~2000.12.31

경기도 행정자료실
 도서
 종별
 제 21921호
 2001년 8월 11일



2-21921

여 백

경기도 상징물

■ 색상의 상징

- 청색: 미래, 희망, 창조 • 적색: 열정, 역동, 힘, 전진 • 주황색: 풍요, 안정

■ 도기의 의미

- 한글 **경기도**의 첫 자음인 **ㄱ**의 형태를 뺀 것이 조화시킨 것은 오랜 전통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바탕으로 약동하는 도민상을 뜻하고
- 적색과 주황색으로 나타난 원형은 우주의 근원, 그리고 역사적, 지리적으로 경기도가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한반도의 중심임을 뜻하며
- 윗부분의 청색은 21세기 통일 한국의 중심지역으로서 세계화, 지방화,의 선두주자가 되는 미래 경기도의 무궁한 발전과 성장을 의미하고
- 백색의 바탕은 우리 도민이 순수하고 깨끗한 배달민족의 후손임을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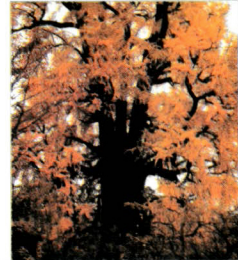
■ 도 마스코트

- 좌측: 도의 기본심볼을 지구와 연계하여
의인화한 기본형 마스코트
- 우측: 경기도에서만 서식하는 크낙새를
의인화한 환경캠페인용 마스코트



■ 도나무(은행나무)

- 역경에 강인하고 수량이 많은 은행나무의 웅대한 모습은 큰 번영을 뜻하며 양질의 목질과 과실을 맺고 신록과 단풍은 관상수로 손꼽힙니다.



■ 도 새(비둘기)

- 인류의 영원한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는 도민평화를 통한 조국 평화통일애의 염원을 담고있습니다.



■ 도 꽃(개나리)

- 대량으로 도내에서 자생하며 번식이 용이하여 큰 번영을 뜻하고
친근, 명량, 고귀한 빛을 나타냅니다.



발간사



『경기도정백서』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와 함께 발간이 시작되어, 금년 제5집이 만들어지기까지 경기도정의 발자취를 기록하는 표준적 사료로서, 그리고 도민들에게 도정성과와 방향을 설명 드리는 자료로서 자리 매김 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도는 지난해 도정시책과 사업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숙연한 자세로, 해당 분야별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기사를 하나 하나 정리하여 한 권의 책을 엮어냈습니다.

2001년 『도정백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동안 우리가 참으로 많은 일들을 해냈구나 하는 감회와 함께, 구조조정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도정을 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난해는 국가적으로나 경기도정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한 해였습니다. 반세기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남북 정상회담과, 평화와 인권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을 한껏 드높인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등 우리 민족사에 길이 기억될만한 뜻깊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도는 “**새 천년의 초석을 다지는 지식기반 사회 건설**”을 2000년 도정의 목표로 하여, 전국 최대의 중소기업 지원과 외자유치, 수출촉진과 더불어 첨단 벤처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엔진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한국경제를 이끌어 가는 중심으로서의 선도적 위치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900만 도민의 성원에 힘입어 보건환경 정책, 재해대책, 민원 행정서비스 시책 등 24개 분야의 중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전국체전과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5연패와 6연패를 달성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였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 제정과 경기북부 제2청사 개청을 통해 북부지역이 평화통일과 신 한반도 시대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고, 또한 정기항로 개척과 컨테이너선 취항, 부두개발을 위한 지원확대 등을 이끌어 내어 평택항을 환황해권 시대의 중추적 허브항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금년은 서력기원으로 21세기의 첫 해로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와 자손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북 화해·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분단의 아픔을 딛고 민족통일과 세계평화의 길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할 해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그 동안 쌓아 온 저력과 성과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경제 재도약과 환경·교통·교육·복지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양대축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매년 발간되는 『경기도정백서』가 후손들에게 한국 지방자치사의 산 교훈이 되기를 기대하며, 경기도를 사랑하는 900만 도민과 공무원, 그리고 자치발전과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각계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자료로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서 발간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2001년 7월

경기도지사 **임창열**

목차

제1장 일반 현황	13
제1절 경기도의 역사	14
제2절 지역적 특성	18
제3절 경기도의 위상과 과제	21
제2장 주요 도정운영 성과	37
제3장 분야별 도정성과	65
제1절 지식기반 경쟁력 강화	66
1. 중소기업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운영	66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66
3. 「경기벤처펀드」운영으로 직접 투자방식의 벤처기업 지원	67
4. 전문 개인투자자들의 모임인 「경기엔젤클럽」결성·운영	67
5. 유희 공공·민간시설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전환	67
6. 전국 최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조성 및 지원	69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과 전국 최대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69
8.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조기 건립 추진	69
9.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우수기관 차지	70
10. 수도권정책 전환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결실	70
11. 판교지역 등 지식기반 집적지 조성 추진	71

12. 권역별 특화업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72
13. 지역·계층·소득간 정보화 격차 해소	72
14. 인터넷무역(KIT21)활성화	73
15. 투자가를 찾아가서 모셔오는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 전개	73
16.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기반 조성 강화	74

제2절 환경보전과 문화관광 진흥.....76

1. 환경NGO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76
2. “지역환경 테크노피아” 구현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	76
3. 환경산업 신기술 도입을 위한 「환경 닥터제」 운영	77
4. 「광릉 숲 보전 실천계획」 마련	77
5. 한강수계법 제정을 통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와 주민지원사업 확대	78
6. 「경기 10·10 물질약 운동」의 대대적 전개	78
7. 효율적 국토이용과 예산절감을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광역화 추진	79
8.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간 환경기초시설 「빅딜」 성사	79
9. 부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	80
10.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자원화	80
11. 공단내 환경 단속권 지방이양(위임) 추진	80
12.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 보급	81
13. 국가기준보다 높아 훨씬 깨끗한 지역대기환경기준 설정	82
14. 지역별로 뚜렷한 주제와 개성을 지닌 테마형 문화산업육성	82
15.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	83
16. 「남한산성」과 「화성」 성역화 사업 추진	84
17. 양주 「회암사지」 조사·정비사업 추진	84
18. 스페인과의 문화·관광교류사업 추진	85
19. ANTONI GAUDI 특별전시회 개최	85

20. 경기도 역사 문화체험 가상현실 시스템 구축	86
21. 고양시 장항지구에 외국인 관광숙박단지 유치	86
22. 인터넷 강국을 실현하는 사이버 도서관 시스템 구축	87
23.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완벽한 준비	88
24. 전국체전 사상 최초로 종합우승 5연패 달성	89
25. 시드니 올림픽 8개 금메달중 4개를 경기도 선수가 획득	89

제3절 지역균형 및 협력기반 구축

1. 3년간 대책 없이 표류하던 접경지역지원법 경기도가 나서서 해결	90
2. 북부 전담부지사가 상주하는 경기도 제2청사 개청	90
3. 북부지역 개발과 SOC 확충을 제4차 국토계획에 반영	91
4. 아시아 무역과 관광의 중심지가 될 국제전시장 유치와 건립	91
5. 수도권 고속도로 북부구간 공사 착수	92
6.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군공여지 반환 추진	92
7.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제도개선 추진	93
8. 평택항 정기항로 개설과 수출물류의 핵심수단인 컨테이너선 취항	93
9. 평택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요건 완화 추진	94
10. 평택항 조기 개발을 위한 여건 조성 과 기반 구축	95
11.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인천과의 협력 강화	95
12. 대도시광역교통관련법 개정을 통한 도로건설 재원확보	95
13.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수월한 도로건설 재원확보	96
14. 천호대교~토평간 등 18개 광역도로망 확충	96
15. 광역전철 사업 지방비 부담 하향 조정	96
16. 환경 친화적인 도시교통 수단으로 경전철 건설	97
17. 서울 도심과 직접 연결되는 광역직행버스 확대 운행	98
18. 광명~서울(구로·금천)간 택시사업구역 통합	99

19. 다핵연합도시 형성을 위한 광역도시계획(2020목표) 수립	99
20.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대규모취락 등의 우선 해제 추진	100
21. 난 개발 방지를 위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100
2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도지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101
23. 러브호텔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01
2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적극 해결	102
25. 환경 친화적 건축물 건설을 위한 경관심의제도 도입	103
26. 농산물 직거래 추진평가 전국 1위 차지	103
27. 집중호우, 태풍, 구제역을 슬기롭게 극복	104
28. 경기 사이버 농장 개설 운영	104
29. 도지사 농산물 품질 인증제(G-Mark) 도입	105
30. 수출 전략 품목 위주의 수출시장 개척	105
31. 전국 최초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106
32. 가축사육규모 전국 1위, 축산업을 선진산업으로 육성	106
33. 도시에 못지 않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106
34. 인공어초시설 전국 1위	107
35. 숲 가꾸기 추진 전국 우수	107

제4절 주민복지와 서민생활 향상.....108

1. 전국 최대의 실업대책예산을 투입하여 실업극복 총력	108
2. 해외 일자리 마련을 위한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108
3. 건설근로자와 저소득층을 동시에 보호하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추진	109
4. 기업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	109
5. 전 도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본격 시행	110
6. 거동이 불편해도 편히 진료 받을 수 있는 도 이동진료반 운영	111
7. 말라리아에 대한 체계적 대책으로 환자발생수 매년 감소 추세	111

8.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112
9. 경기도 여성정책의 근간이 되는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113
10. 여성발전기금 100억원 2년 앞 당겨 조성	113
11. 여성정책 추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114
12. 전국 최초로 여성정책국과 제2청사 여성국 설치	114
13. 여성공무원 채용확대 및 보직 특별관리	114
14. 노인복지기금 100억원을 3년 앞당겨 조성	115
15. 경로연금확대 등 저소득노인복지시책 확대	116
16.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5대 노인의료복지서비스 확대	116
17. 노인성 치매환자를 위한 희소식, 독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운영	116
18. 노인성 만성퇴행성질환 치료를 위한 보건소 한방진료 실시	117
19. 장애인복지기금 조성목표 100억원 조기 달성	117
20.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시설설치 5개년계획 추진	118
21. 장애인복지 전담 부서 설치	118
22. 제20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6연패 달성	118
23. 장애인 법정고용비율 행정기관부터 술선수범	119
24.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에 대한 1:1결연사업 확대	119
25. 경기교육대학 설립추진	120
26.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	120
27.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교급식 100% 완료	121
28. 청소년육성기금 115억원 조성	121
29. 청소년 정책결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차세대위원회 발족	121
30. 청소년보호대책 추진 전국평가 우수기관 선정	122
31. 2000년 청소년 상담사업 전국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122
32.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점검결과 위반업소 공개	123
33. 주민들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구조·구급활동 실시	123

34. 도심내 LPG 충전소의 도시외곽 이전 추진	124
35. 과거 10년보다 2배나 많은 예산을 투입, 수해복구에 전력	124
36. 재해대책 추진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125
37. 교통사고 줄이기 획기적인 개선대책 마련	125

제5절 행정시스템 혁신126

1. 국제수준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인증하는 ISO 인증 획득	126
2.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인 경인TV방송국 설립	126
3. 문화행사를 곁들인 변화된 모습의 도정시책설명회 개최	127
4. 지방세 민원사례 및 판례 「경기넷」 정보제공	127
5. 보존기록물 전산화로 열린 도정 구현	128
6. 인터넷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	128
7. 도정의 주요 정책결정·집행·평가과정에 도민참여 확대	128
8. 국회·중앙·인근 자치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협력으로 현안 해결	129
9. 구조조정의 마무리 및 가변차선식의 탄력적 조직 운용	132
10. 화성·광주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도농복합시 승격	133
11. 지방교부세율을 13.27%에서 15%로 상향 조정	133
12. 국세인 교통세를 지방주행세로 전환	134
13. 국세인 지방세 부과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	134
14. 담배소비세 세율인상으로 주민부담 없는 세수 증대	134

〈부록〉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법령 제·개정 ...135

여 백

제 1 장 일반현황

제1절 경기도의 역사

제2절 지역적 특성

제3절 경기도의 위상과 과제

제1절 경기도의 역사

1. 유래와 연혁

경기도의 지리적 범위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를 둘러싸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황해도, 동쪽으로는 강원도, 남쪽 충청남도, 남동쪽으로는 충청북도에 각각 접하는 지역으로 서쪽으로는 황해까지 포함하고 있다.

지리적 환경은 국토의 노른자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토의 중서부에 위치하여 정치·경제·문화 각 부문의 중심지로 해로나 육로를 이용하여 국토의 남부와 북부를 쉽게 연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옥한 토지와 온화한 기후로 선사시대 이래 우리 역사의 중심 무대가 되어 왔다.

본래 경기(京畿)라는 말은 당나라 때 왕도의 주변지역을 경현(京縣, 赤縣)과 기현(畿縣)으로 나누어 통치하던 때부터 기원한다. 경(京)은 천자(天子)가 도읍한 경사(京師)를 뜻하고 기(畿)는 천자의 거주지인 왕성을 중심으로 사방 500리 이내의 땅을 의미했으나 점차 왕도의 외각지역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다가 고려시대에 와서 처음으로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지역을 경기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기원전 2세기경 경기 북부 지역에는 진국(辰國)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경기지역은 마한연맹체에 속하였으며 마한연맹체 54개의 소국 가운데 10여개의 소국이 경기도지역에 분포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전국을 9주로 편성하였는데 이때 경기도지역에는 한산주(漢山州)가 설치되었고 27군 46현이 이에 소속되었다. 그 영역은 오늘날 가평군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충청북도의 충주시·진천군·음성군·괴산군, 강원도의 철원군·이천군·평강군, 황해도의 대부분 지역을 포함하였으며, 후삼국시대에 한산주는 궁예의 지배 하에 편

입되었다.

고려의 태조 왕건은 개성을 도읍으로 하고 이 지역을 개주(開州)로 삼았다. 성종대에 개주는 개성부로 승격되고 6개의 적현과 7개의 기현을 직할지로 삼아 관할하였다. 이후 현종대에는 적현·기현을 폐지하고 12개 현을 특별한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확정하여 “경기”라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왕경의 주위를 정식으로 “경기”라고 칭한 것은 이때부터였다.

조선시대 경기도에는 1개의 목(牧)과 8개의 도호부(都護府), 6개의 군(郡) 및 26개 현이 소속되었다. 세종때 경기는 대체로 현재의 경기도의 관내와 일치하게 되었고 세조때에는 4목 7도호부, 7군 19현이 소속되었다. 고종때에는 광주·개성·강화 등 3개 부(府)와 38개 군이 설치되었다. 이와 같은 분리와 통합의 변화를 통해 오늘의 형태로 확립되었다.

그리고 경기도의 도청소재지 즉 치소(治所)는 처음에 수원이었고 뒤에 광주로 옮겨졌으며 일제시기에는 경성으로 옮겨 1960년대까지 서울에 있다가 1967년 수원으로 이전되었다.

2. 행정구역 변천

6.25 동란이후 1954년 연천군 및 포천군의 북부지역은 정식 수복되었으나 휴전선 이북에 위치한 개성시·개풍군·장단군·용진군·연백군의 5개 시·군중 용진군의 2개 면을 제외하고는 완전 수복되지 않으므로써 경기도는 2개시 19군 8읍을 관할하게 되었다.

1963년에 양주군의 의정부읍이 의정부시로 승격되었고, 1967년 서울특별시에 있던 경기도청이 수원시로 이전되었으며, 1973년에 안양읍이 안양시, 소사읍이 부천시, 성남출장소가 성남시로 각각 승격됨으로써 경기도의 행정구역은 6개시 4구 18군으로 되었다.

1981년에는 인구증가로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분리되고 양주군

동두천읍이 동두천시, 평택군 송탄읍이 송탄시, 시흥군 소하읍이 광명시로 각각 승격되었다.

1986년에 구리읍·평택읍·과천출장소·반월출장소를 각각 구리시·평택시·과천시·안산시로 승격되므로써 경기도는 12개시 19군 33읍 160개면 을 관할하게 되었다.

1988. 7. 1일 수원시에 장안구와 권선구가 설치되면서 인천시 분리 후 처음으로 경기도에 구가 신설되었고, 1989. 1. 1일 남양주군 미금읍을 미금시로, 화성시 오산읍을 오산시로, 시흥군 소래읍, 군자면, 수암면을 시흥시로, 군포읍을 군포시, 의왕읍을 의왕시로, 광주군 동부읍, 서부면, 중부면 상산곡리를 하남시로 하는 행정구역을 대폭 개편하여 6개시를 승격시키면서 시흥군이 자동 폐지되었으며 1992. 2. 1일에는 고양군 전체를 고양시로 승격시키면서 경기도 행정구역은 19시 17군으로 되었다.

1995. 1. 1일 도농복합형태의 시·군 통합이 시작되면서 미금시와 남양주군을 통합하여 남양주시를 설치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1995. 3. 1일에는 김포군 검단면과 강화군 대부면을 제외한 용진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하게 되었고, 1995. 5. 10일 송탄시, 평택시, 평택군 등 3개시·군을 통합하여 평택시를 설치함으로써 경기도는 18개시 13군이 되었다.

1996. 3. 1일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형태를 갖춘 용인군, 파주군, 이천군이 각각 시로 승격되어 21개시 10군이 되었다.

1997. 12. 17일 도시화 추세에 있는 안성군, 김포군을 도농 복합시로 승격하는 법률이 공포되고 1998. 4. 1일 2개군이 각각 시로 승격되어 경기도는 23개시 8군이 되었다.

그리고 2001. 3. 21일 수도권 배후 지역으로 높은 인구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의 추세에 있는 화성시과 광주군을 도농복합시로 승격됨에 따라 25개시 6군의 체제로 개편되었다.

〈표 1-1-1〉 행정구역 현황

구분	시·군	구	읍	면	동	시·군 출장소	읍·면 출장소	통	리	반
계	31	13	25	124	338	4	2	9,687	4,082	72,725
시	25	13	16	75	338	4	-	9,687	2,917	68,153
군	6	-	9	49	-	-	2	-	1,165	4,572

3. 경기도의 변화 모습

2000년말 경기도의 인구는 9,280,013명으로 지난 '90년 이후 현재 까지 10년간 자그마치 3백여만명이 늘어났다. '99년 이후 서울은 0.5%가 늘어나고 부산은 0.5%가 줄었으나 경기도는 해마다 3~4%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오는 2003년경이면 서울보다 경기도 인구가 많아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같이 인구의 증가에 따라 '90년과 2000년의 10년간 변화된 모습을 통계수치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정규모는 40,687억원에서 144,738억원으로 3.6배 늘어났으며 재정자립도는 75.9%에서 77.5%로 1.6%포인트가 높아졌다. 학교는 초등학교가 151개교(684→835개교)가 늘어난 것을 비롯해 중학교 107개교(271→378개교), 고등학교 92개교(203→295개교)가 각각 늘어났으며, 전문대학이상 대학원이 37개교(45→82개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동차 등록대수는 447천대에서 2,487천대로 5.6배나 늘어났고 수출은 147억\$에서 347억\$로 200억\$이 늘어났다. 그리고 주택보급률은 급증하는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26.1%포인트(62.1→88.2%) 상승하였고 상수도 보급률은 18.0%포인트(70→88%), 하천개수율은 27.5%포인트(59.9→87.4%), 도로 포장률은 1.8%포인트(79.4→81.2%) 늘어났다.

제2절 지역적 특성

1. 위치

경기도는 동북아시아에 길게 뻗은 한반도의 서부중앙지역으로서 동경 126°와 127°, 북위 36°와 38°사이에 위치해 있다.

경기도의 면적은 전국토의 10.2%인 10,190km²이며 북쪽으로는 86km의 휴전선에, 서쪽으로는 413km의 해안선에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강원도, 남쪽으로는 충청도와 인접해 있고 그 중앙에는 서울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한강에 의해 남·북 지역으로 나뉘어져 한수이북으로는 산간지역이, 한수 이남지역에는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다.

〈표 1-1-2〉경도와 위도의 극점

도 청	단	지 명	극 점	연락거리(km)
동경	동단	양평군 청운면 도원리	동경 127° 51′	동서간 130.0
127° 00′	서단	안산시 풍도동 풍도	동경 126° 22′	
북위	남단	안성시 서운면 청룡리	북위 36° 53′	남북간 155.4
37° 16′	북단	연천군 신서면 도밀리	북위 38° 17′	

자료) 경기도 도정주요통계(2001)

2. 자연환경

기후는 남부와 북부사이의 점이지대적 모습을 나타내고, 연평균기온은 대략 10~13℃이며, 북동부의 산악지가 낮고, 남서쪽 해안지역이 약간 높다. 1월 평균기온은 경기만 일대가 -4℃, 남한강유역이 -4~6℃,

북한강과 임진강유역이 -6~8℃로 해안에서 내륙으로 갈수록 한랭하고 기온교차가 커진다.

연평균 강수량은 1,100mm내외로 다우지역에 속하며 북동부 내륙지방인 북한강유역과 임진강상류는 1,300~1,400mm에 달하나, 해안지방은 강수량이 900mm내외에 불과하다.

지형은 대체로 추가령구조곡을 경계로 북부산지와 남부산지로 나누어지는데, 북부는 중국 요동방향의 마식령산맥, 남부는 중국방향의 광주산맥과 차령산맥이 각각 그 골간을 이루고 있으며, 서쪽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고도가 낮아져 평야나 구릉성 산지로 바뀐다.

도내에 분포하는 주요 산들은 주로 광주산맥에 속하는데, 내륙쪽의 명지산(明智山, 1,267m)·국망봉(國望峰, 1,167m)·광덕산(廣德山, 1,046m)·용문산(龍門山, 1,157m)등이 1,000m를 넘고, 서울 부근에 위치한 국사봉(國師峰, 764m)·천마산(天摩山, 812m)·수락산(水落山, 629m)·도봉산(道峰山, 717m)·관악산(冠岳山, 629m) 등이 700m 내외의 고도를 가지며, 화강암지대에 발달된 이 산들은 화강암의 박리작용(剝離作用)의 결과로 기암절벽이 많고 계곡이 깊어 예로부터 명산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하천은 한강·임진강·안성천(安城川) 등이며 대부분이 한강유역에 속한다. 한강은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긴 강(514km)이며, 그 유역면적은 약 2만 7,260㎢로 압록강에 이어 전국 제2위이다.

한강은 금강산 부근에서 발원하는 북한강 수계와 오대산 부근에서 발원하는 남한강 수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북한강은 소양강·홍천강·청평강 등의 지류를 합치면서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평창강·옥동강·달천·청미천·섬강·북하천 등의 지류로 합치며, 서북쪽으로 돌아 흘러오는 남한강과 양수리 근처에서 합류하여 한강의 본류를 이룬 뒤 강화도의 북쪽을 돌아 경기만으로 들어간다.

임진강은 마식령산맥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한탄강·영평천·사미천·문산천 등의 지류를 모아 김포 부근에서 한강과 만난다.

평야는 대부분이 이 세 하천유역에 발달한 충적(沖積) 평야이며, 한강 중류의 이천·여주들, 하류의 김포·부평들과 임진강 하류의 파주들, 안성천과 진위천 유역의 평택·화성들이 주요한 평야를 이룬다. 이밖에 한강 중·상류에는 분지(盆地)와 곡저(谷底) 평야의 발달이 현저하고, 강화도·김포 및 남양만·아산만일대에는 간척사업으로 이루어진 넓은 간척평야가 있다.

해안선(인천광역시 포함) 가까이 까지 구릉이 형성되어 있어 해안 평야의 발달은 미미한 반면 조석 간만의 차이가 인천만에서는 9m 안산만에서는 10m에 달하는 등 간석지의 발달이 현저하고, 출입이 심하고 많은 만과 반도·섬 등이 발달되어 있는 침수해안으로 길이가 1,416km에 달하고, 강화도·교동도·영종도·덕적도·영흥도 등의 250여개의 섬이 분포한다. 주요한 만입(灣入)으로는 강화만·인천만·남양만·아산만 등(이른바 경기만이라 함)을 들 수 있다.

제3절 경기도의 위상과 과제

1. 인구 및 면적

□ 경기도 인구는 928만명으로 전국의 19%, 인구밀도는 911명/km²

- 인구(9,280,013명)는 전국의 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3~4% 정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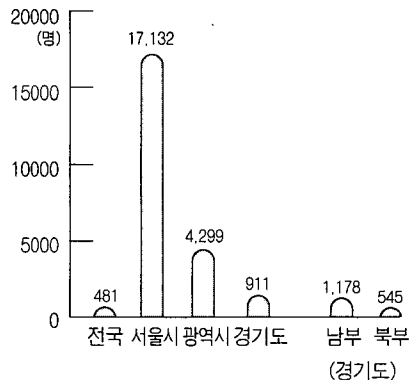
구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인구수(천명)	8,190	8,514	8,712	8,982	9,280
증가율		3.95%	2.32%	3.10%	3.31%

- 인구밀도(911명/km²)는 서울시를 비롯한 6개 광역시의 평균 인구밀도(4,346명)의 1/5 수준이며, 특히 서울시 인구밀도(17,132명)의 1/19에 불과하며 광역시 중 가장 인구밀도가 적은 울산시(989명)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경기도 전체면적의 88.3%를 차지하고 있는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은 374명/km²로 전국평균에도 미달

(2000. 12. 31 현재)

구분	인구수 (만명)	인구밀도 (명)	비고
전국	4,797	481	
서울시	1,037	17,132	
광역시전체	2,309	4,299	
경계	928	911	
기남부	694	1,178	
도북부	234	545	전국평균과 비슷

인구 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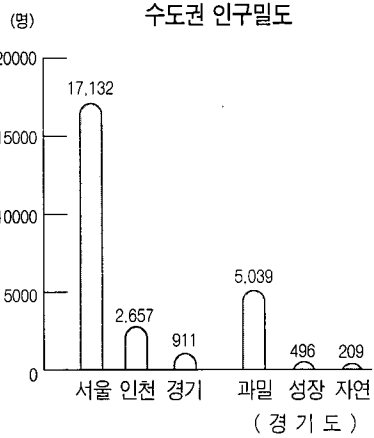
※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 면적의 33%이나 인구는 3.5%에 불과

(2000.12.31 현재)

(단위 : 명, %)

지역별	인구밀도	수도권전체대비	
		인 구	면 적
서울	17,132	46.7	5.1
인천	2,657	11.5	8.2
경기	911	41.8	86.7
과밀	5,039	26.6	10.0
성장	496	11.6	44.0
자연	209	3.6	32.7

※ 가평(67), 연천(76), 양평(94)은 인구밀도가 100명도 안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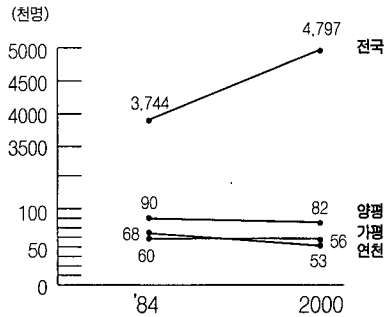


-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 면적의 36.6%이나 인구는 10.1%에 불과하고, 특히 '84년 대비 전국인구는 28.1%가 증가하였으나, 가평과 연천, 양평은 감소

(2000.12.31 현재)

(단위 : 천명, %)

지역별	'84년도	2000년도	증감	증감율
전국	3,744	4,797	1,053	28.1
연천	68	53	△15	△22.0
가평	60	56	△4	△6.7
양평	90	82	△8	△8.9



⇒ 따라서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서울, 인천, 경기도 일부지역에 국한된 사항임

면적은 수도권 전체의 87%를 차지하나 2중 3중의 규제로 묶여 있음

- 전체면적은 10,189.10km²로 수도권 전체 (11,759.13km²)의 86.6%,

전국(99,826.44km²)의 10.2% 차지하나, 수도권정비권역 등으로 2
중 3중의 규제로 묶여 있음

▷ 수도권정비권역 100%	▷ 군사시설보호구역 24%
▷ 팔당상수원대책지역 21%	▷ 개발제한구역 13%

2. 행정수요와 공무원수

□ 행정수요의 급격한 팽창(2000년도 기준 '90년 대비)

- 인구증가에 따른 각종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자동차 증가와 산업
화에 따른 각종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인구증가에 상회하는 행
정수요가 증가되었고, 특히 환경 및 소방행정수요의 증가폭이 더
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인구수(1.6배)	: 597만명	→ 928만명
▷ 재정규모(3.6배)	: 40,687억원	→ 144,738억원
▷ 1일 민원처리건수(2배)	: 6만건	→ 13만건
▷ 환경기초시설수(4배)	: 32개소	→ 125개소
▷ 자동차등록대수(5.6배)	: 45만대	→ 249만대
▷ 건축허가(1.3배)	: 1,798만㎡	→ 2,399만㎡
▷ 소방대상물(2.6배)	: 29천개소	→ 75천개소
▷ 소방구급(15배)	: 11천명	→ 154천명

□ 행정수요는 급증한 반면 공무원수는 타시·도에 비해 월등히 부족

- 경기도는 급속한 인구증가, 중소기업 집중, 급속한 도시화, 접경
지역지원 제정에 따른 통일기반 조성, 수도권 교통·환경문제, 중
첩된 토지 규제 등 특수 행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기구·정
원은 타 시·도에 비해 크게 열악한 실정임

- ▷ 공무원수(2000년기준 '90년대비) : 27,874명 → 32,988명(1.18배)
- ▷ 공무원 1인당 주민수 : 279명(전국평균 195, 전국 최하위, 도평균 절반수준)
 - 서울 220, 부산 261, 대구 261, 경남 168, 경북 130
- ※ 경찰공무원 1인당 주민수 : 789명(전국평균 529, 전국 최하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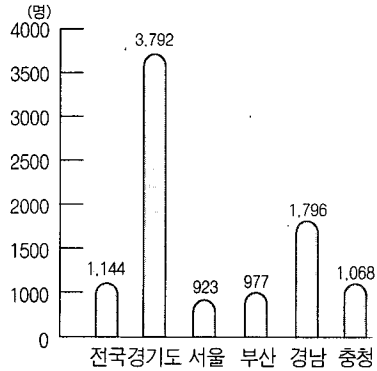
- 특히 道本청의 경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평균의 절반수준도 못 미치며, 일반직만 비교할 경우에는 1/3 수준에도 훨씬 못 미쳐 비교조차 안됨

※ 부산은 경기도 인구의 절반수준도 안 되는데 공무원수는 경기도와 비슷하며, 소방공무원수도 전국평균 2/3 수준밖에 안됨

도본청 일반직 공무원 1인당 주민수

(2000.12.31 현재, 인구는 외국인제외 수치)

구 분	전국	경기 도	광역시		도		
			서울	부산	경남	충남	
인 구(만명)	4,773	922	1,031	380	309	192	
정 원(명)	64,947	5,644	16,619	5,443	3,232	2,921	
공무원	전체	739	1,624	638	698	957	658
1인당	일반	1,144	3,792	923	977	1,796	1,068
주민수	소방	2,084	2,903	2,063	2,435	2,051	1,713



3. 산업구조와 도시화

□ 광공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9개道 중 가장 높음

- 도전체 인구의 광공업과 건설업 종사자 비율이 38.25%로 가장 높고, 서비스업이 27.54%를 차지하고 있음.
- 서울과 비교하면 광공업, 숙박·음식업 부문에서는 경기도가 높으

나, 도·소매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부문에서
서울시가 더 높음

(1999.12.31)

(단위: %)

구분	농림어업	광공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운수·통신업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전국	0.47	30.19	18.15	11.25	6.68	4.79	28.47
경기	0.13	38.25	14.57	10.65	5.10	3.76	27.54
서울	0.04	24.73	22.51	9.66	8.10	5.57	29.39

※ 자료: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통계청, 20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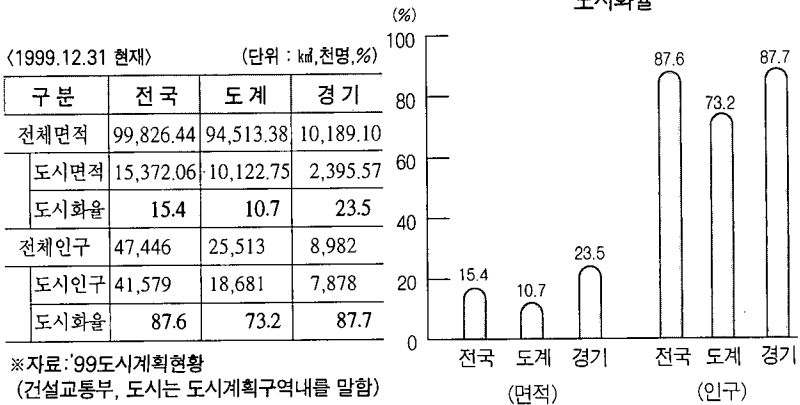
※ 광공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사회보장사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운동관련사업, 기타 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

□ 도시지역 비율이 9개도 중 가장 높음

- 전체면적으로 볼 때 도시계획구역의 비율이 23.5%로 9개도 중 가장 높고, 9개도 평균인 10.7%의 2배를 상회할 정도로 비중이 큼
- 인구로 볼 때 경기도 전체면적의 23.5%에 해당하는 도시계획구역내에 87.7%가 거주하고 있어 좁은 공간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도시화율



- 31개 시·군중 25개가 시이며, 郡은 6개(양주, 여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 이 중 포천(148,102), 양주(120,293), 여주(104,011)는 인구가 10만명이 넘음

4. 산업 경제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20% 이상을 점유하는 국가경제의 중심

- 중소기업, 첨단기업, GRDP, 수출액 등에서 전국 1. 2위 수준

▷ 중소기업체(99) : 전국의 28%(1위) ▷ 첨단기업(97) : 전국의 37%(1위)
 ▷ GRDP(98) : 전국의 20%(2위) ▷ 수출액(2000) : 전국의 22%(1위)
 ▷ 경제활동인구(2000) : 전국의 19%(2위)

우수인력과 풍부한 사회간접시설 등 지식기반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

- 전국 중소기업의 28%, 첨단산업의 37%가 몰려있고, 한국의 중추적 기업인 삼성, 현대, LG 등 업체의 핵심 사업장 소재
- 국제공항(김포, 인천), 항만(평택, 인천)과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과 세계적인 통신망을 갖추고 있음

▷ 전국비중으로 본 경기도의 첨단·신산업 집적도
 ○반도체 65% ○첨단전자 50% ○바이오 70% ○정밀화학 37%
 ▷ 전국대비 경기도의 지식기반 잠재력
 ○연구개발투자비 35% ○기업연구개발인력 41%
 ○대학 62개 ○기업연구소 28%

※ 자료 : 경기도 지식기반산업 실태조사(경기개발연구원 2000. 2월)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에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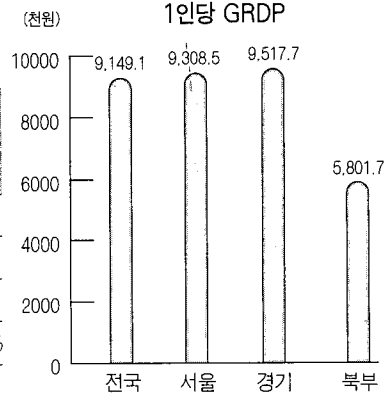
- 지역내 총생산은 82조 7,317억원으로 전국의 19.5% 를 차지하고

있으나, 1인당 GRDP는 전국평균수준이며 북부지역은 전국평균의 60.4% 수준밖에 안됨

- 또한 신도시가 들어선 고양·성남의 경우 전국 평균의 절반수준도 못 미치고 있어 신도시지역의 자족기반 부족이 눈에 띄게 나타남

(1998년 기준)

구분	GRDP (백만원)	1인당 GRDP (천원)	비고
전국 평균	424,791,813	9,149.1	
최고(서울)	94,410,289	9,308.5	
경기	82,731,651	9,517.7	전국의 19.5%
북부지역	12,326,199	5,801.7	전국평균의 63.4%



※ 신도시지역만 별도 산정시 그 격차는 더욱 심화(고양4,093, 성남5,886)

□ 산업단지면적으로는 전국 6번째, 1인당 면적은 전국 11위

시도 별	단 지 수				면 적(천㎡)			분양율(%)			1인당 면적 (㎡/1인)		
	계	국가	지방	농공	계	%	국가	지방	농공	국가		지방	농공
계	483	32	156	295	666,709	100	420,903	204,019	44,767	94.5	88.5	95.9	13.90
울산	6	2	-	4	63,801	9.6	63,205	-	596	100	-	100	61.10
경기	49	4	44	1	49,678	7.5	33,440	16,122	116	98.4	97.8	100	5.35
충북	53	2	14	37	37,995	5.7	13,053	20,196	4,746	100	100	98.4	25.25
충남	80	3	19	58	56,936	8.5	24,002	23,903	9,031	66.6	94.6	96.7	29.50
전북	43	3	10	30	47,212	7.1	22,692	20,280	4,240	88.4	82.9	97.4	23.53
전남	50	5	10	35	177,188	26.6	139,529	31,394	6,265	90.6	35.1	97.4	83.01
경북	72	2	17	53	88,646	13.3	60,686	19,159	8,801	100	94.9	92.4	31.51

※ 자료 :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2000. 4/4분기(산업자원부)

※ 1인당 산업단지면적(㎡/1인) : 서울(0.37), 부산(4.61), 대구(7.61), 인천(4.78), 광주(10.76), 대전(5.26), 강원(7.61), 경남(19.61), 제주(0.57)

- 전체면적을 보면 충남보다도 적고, 도민 1인당 산업단지면적(5.33㎡/인)을 분석해 보면 경기도에 비해 전남(83.3㎡)은 16배, 울산(61.1㎡)은 11배, 경북(31.4㎡)은 6배, 충남(29.4㎡)은 6배, 충북(25.7㎡)은 5배가 많음(2000. 12. 31 현재)

□ 금융기관 · 대기업이 서울집중으로 되어 있어 경기도는 인구에 비해 부족

- 수도권에 금융 · 대기업 등이 집중되어 국토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하나 이는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서 경기도는 인구에 비해 부족한 실정임

〈1999.12.31 현재〉

구 분	인구 비중	일 반 은 행		300인 이상 대기업수(비중)
		점포수(비중)	대출금(비중)	
전 국	100.0	4,853(100.0)	250조원(100.0)	2,390(100.0)
수 도 권	46.2	2,831(58.3)	155.6(62.3)	1,283(53.7)
서 울	21.6	1,957(40.3)	113.0(45.2)	803(33.6)
경 기	19.3	687(14.1)	33.0(13.2)	372(15.6)
인 천	5.3	187(3.9)	9.6(3.9)	10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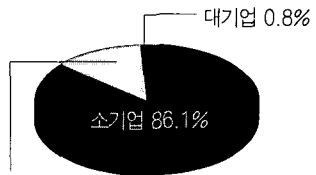
※ 자료 : 2000 지역통계연보(통계청)

□ 등록공장의 99.2%가 중 · 소기업체, 제조업 가동율은 호전, 부도율은 감소

〈2000.12.31 현재〉

(단위 : 업체, 천명)

계	계		대 기업		중기업		소기업	
	업체수	종업원	업체수	종업원	업체수	종업원	업체수	종업원
경기	24,699	697	195 (0.8)	179 (25.7)	3,235 (13.1)	249 (35.7)	21,269 (86.1)	269 (38.6)



※ 자료 : 경기도 공업지원과(자체자료)

중기업 13.1%

- 경기도에 등록된 공장은 24,699업체로 이 중 99.2%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이 전국에 차지하는 비중은 28% 정도임
- 연도별 공장등록 추이를 분석해보면 공장등록업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95년 이후 종업원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자동화 저밀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된데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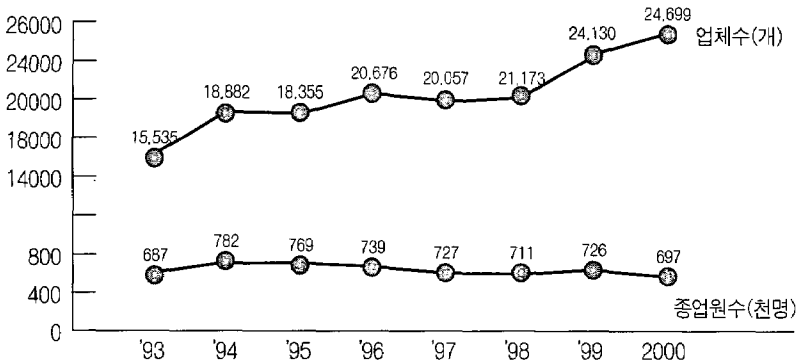
(2000. 12. 31 현재)

(단위 : 업체, 천명)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업체수	15,535	18,882	18,355	20,676	20,057	21,173	24,130	24,699
종업원	687	782	769	739	727	711	726	697

※ 자료 : 경기도 공업지원과(자체자료)

공장등록및 종업원수 변동추이



(2000. 12. 31 현재)

(공장가동율은 1995=100, 단위 : %)

구분	제조업 평균 가동율		어음 부도율	
	전국	경기	전국	경기
1997	79.2		0.40	0.73
1998	68.0		0.38	0.97
1999	76.5	80.3	0.33	0.18
2000	78.3	82.1	0.26	0.23

※ 자료 : 통계청(경기도의 가동률은 반월·시화·지방공단(성남, 송탄, 평택, 안성2) 생산가동률) 재점경제부, 통계청(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후)

- 제조업 가동율은 전국평균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99년 이후 호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반면 어음부도율은 '98년까지는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99년 이후 낮아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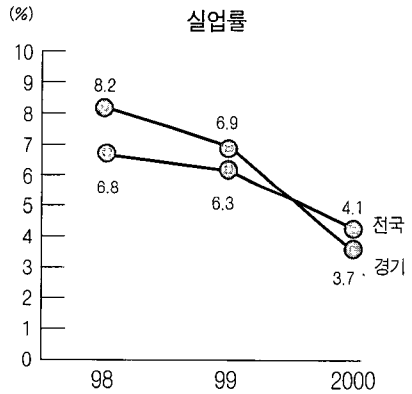
□ IMF 이후 실업자수 변동 추이

- 경기도 실업자수 IMF 이후 '99. 1월에 39만명(10.2%, 전국은 8.5%)으로 가장 높은 실업률을 보였으며, 2000. 10월에는 실업률이 2.7%까지 감소

(2000. 12. 31 현재) (단위: 천명, %)

구 분	전 국		경 기		
	실업자수	실업률	실업자수	실업률	
1998	1,461	6.8	323	8.2	
1999	1,353	6.3	284	6.9	
2000	889	4.1	156	3.7	
'98 이후	최고('99.1)	1,761	8.5	391	10.2
	최저(2000.10)	760	3.4	118	2.7

※ 자료 : 월별 실업통계(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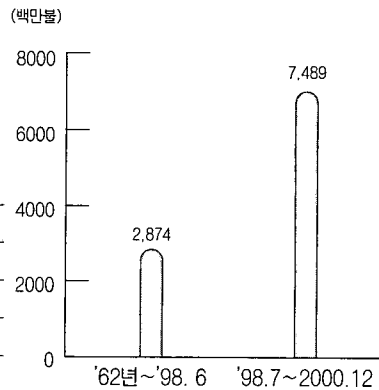
□ '98. 7월 이후 외국인 투자유치 급격히 증가

- 경기도내 외국인 투자유치액의 72%가 '98. 7월 이후 2년 6개월간 유치

(2000. 12. 31 현재) (단위: 건, 백만불, %)

구 분	건수	금액	비율
계	1,449	10,363	100.0
'62년~'98.6	720	2,874	27.7
'98.7~2000.12	729	7,489	72.3

※ 자료 : 산업자원부 투자진흥과 제공 (도 투자진흥과 분석자료)



□ 전국 수출액의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22%

- 2000년도 수출·입규모는 736억 7,600만달러로 우리나라 총교역액의 22% 점유

(2000. 12. 31 현재)

(단위 : 백만달러)

년도별	전 국		경 기 도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1996	129,715	150,339	23,259	17.9%	26,741
1997	136,164	144,616	24,440	17.9%	25,306
1998	132,313	93,282	21,063	15.9%	15,811
1999	143,685	119,752	26,600	18.5%	23,400
2000	172,621	160,492	38,038	22.0%	35,638

※ 자료 :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

5. 농·축산업 잠재력

□ 농가수와 농가인구, 경기면적, 농가소득

- 농가수와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99년말 현재 54만9천명
- 농지면적 211,195ha중 밭이 39.4%(83,280ha)이고 논은 60.6%(127,915ha)
- ※ 논과 밭을 합한 경기도 농경지의 총면적은 2,139km²로 경기도 전체 면적(10,190 km²) 의 21%. 산림(약 5,200km²)을 제외한 면적(약 2,100km²)의 43%에 이룸

(1999 12. 31 현재)

구 분	전 국	경 기	비 고
농가수(천호)	1,382	150	전국의 10.9%
농가인구(천명)	4,210	549	전국의 13.0%(전국 3위)
겸업농가인구(천명)	503	81	전국의 16.1%(전국 1위)
1인당농가소득(천원)	26,661	22,323	전국평균의 119%

※ 자료 : 2000농업기본통계(농림부), 2000농가경제통계(통계청)

- '97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전국 평균보다 30%가량 높았으나 IMF위기로 '98년에는 20%가 감소(2천 4백만원) 하였으며 '99년에는 '98년에 비해 8.8%가 증가(2천 6백만원)

□ 전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작물 생산량의 큰 비중을 차지

- 전국 벼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11.4%를 담당하고 있으나, 농지의 타 용도전용과 논에 타작물 재배면적 증가,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의한 영농여건의 악화로 휴경논 발생 증가
- 수도권 입지의 장점으로 시설채소, 화훼, 인삼재배에 있어 전국 1위
 - ※ 특히 홍삼은 전국의 절반이상을 경기도가 생산
- 전업화·규모화에 의해 축산농가는 감소하고 있으나, 젓소, 돼지, 닭 등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사육

(1999 12. 31 현재)

구 분		전 국	경 기	비 고
벼	재배면적(천ha)	1,072	121.8	전국의 11.4%
	생산량(천톤)	5,291	583	전국의 11.0%
시설원예 · 특작	시설채소(ha)	82,465	13,878	전국의 16.8%(전국 1위)
	화훼(ha)	5,368	1,321	전국의 24.6%(전국 1위)
	인삼(ha)	10,349	1,734	전국의 16.8%(전국 1위)
	홍삼(ha)	2,902	1,470	전국의 50.7%(전국 1위)
육 류	젓소(천두)	544	204	전국의 38.0%(전국 1위)
	돼지(천두)	8,214	1,968	전국의 24.0%(전국 1위)
	닭(천수)	102,546	26,880	전국의 26.0%(전국 1위)

※ 자료 : 2000경지면적통계(농림부 국립품질관리원), 2000채소·화훼기본통계, 2000가축통계(농림부)

6. 삶의 질 부문

- ▷ 규모면에서는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나, 1인당 기준에서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요구됨

시도별	1인당 GRDP (만원)	1인당 도로연장 (m)	1일1인당 급수량 (l)	100명당 전화보급 대수(대)	병상당 인구수 (명)	1인당도시 공원면적 (㎡)	1인당 녹지면적 (㎡)	주택 보급율 (%)	도서관석 당인구수 (명)	1인당 장서수 (권)	1문화공 간당인 구수(명)
기준연도	1998	2000	1999	1999	1999	1999	1999	2000	2000	2000	2000
전국	1,035	1.85	388	43.6	183	23.7	2.30	94.3	203	0.46	4,599
서울	995	0.77	423	48.9	195	9.9	0.28	71.7	347	0.40	6,419
부산	765	0.67	384	42.3	157	13.8	1.50	80.1	314	0.40	6,082
대구	632	0.79	444	43.2	194	21.5	1.98	81.1	192	0.49	7,890
인천	819	0.80	438	41.0	196	18.0	1.14	96.6	312	0.32	9,348
광주	756	0.85	310	43.2	172	34.0	1.36	100.4	124	0.94	5,018
대전	759	1.05	416	45.7	145	35.7	1.72	95.9	148	0.73	3,800
울산	2,213	2.49	330	-	262	24.1	3.11	93.3	212	0.28	5,596
경기	1,043	1.24	353	42.3	216	19.6	1.87	97.8	254	0.34	6,580
강원	814	5.03	372	43.3	133	36.6	5.52	117.0	103	0.88	1,714
충북	1,173	4.12	346	42.5	157	40.3	3.19	111.1	157	0.51	2,328
충남	1,155	3.29	319	43.0	178	52.6	4.49	125.4	157	0.55	1,793
전북	846	3.03	486	40.7	161	35.6	4.12	113.0	136	0.44	2,211
전남	1,183	3.84	384	39.5	153	51.4	7.20	116.9	127	0.68	1,745
경북	1,143	3.31	373	40.9	209	32.2	5.55	112.6	146	0.58	1,898
경남	1,117	3.41	322	41.4	165	51.3	6.70	102.6	190	0.45	2,543
제주	840	4.81	317	42.9	248	32.5	1.05	99.1	90	0.97	2,439
전국순위	7위	10위	10위	8위	14위	14위	9위	10위	13위	14위	14위

시도별	1인당	1인당지방	1인당	공무원1인당		소방관1인	경찰관1인	교원1인당 학생수(명)		
	세출액 (천원)	세부담액 (천원)	정부지원 (천원)	시·군 +도	도(소방 제외)	당주민수 (명)	당주민수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준연도	2001	2001	2001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전국	1,284	492	571	195	1,139	2,073	529	28.7	20.1	19.9
서울	1,095	754	56	220	923	2,063	423	30.1	19.4	22.8
부산	831	420	276	261	977	2,435	505	30.2	20.4	21.0
대구	826	372	380	261	845	2,218	579	33.1	22.3	21.1
인천	977	528	264	247	759	2,325	626	34.3	22.9	21.2
광주	979	394	432	239	715	2,127	498	33.1	22.4	19.6
대전	886	438	326	240	751	1,916	603	32.2	21.6	20.6
울산	873	494	220	235	676	2,414	627	31.9	23.9	21.5
경기	1,035	519	286	279	3,768	2,884	791	33.5	24.6	21.3
강원	2,155	386	1,485	107	945	1,248	448	21.5	16.8	15.8
충북	1,612	355	1,035	142	965	1,760	555	25.4	19.1	18.9
충남	1,869	350	1,265	162	1,068	1,713	603	22.0	17.6	17.2
전북	1,867	313	1,320	139	1,277	1,771	476	23.3	16.1	16.1
전남	2,231	236	1,815	112	1,177	1,601	498	20.2	14.6	16.0
경북	1,807	365	1,218	130	1,617	1,719	517	22.9	17.6	17.6
경남	1,605	375	959	168	1,796	2,051	587	27.2	19.7	18.2
제주	2,500	550	1,557	129	955	1,285	445	25.3	17.3	17.2
전국순위	10위	13위	12위	16위	16위	16위	16위	15위	16위	14위

※ 전국순위는 수치의 크기가 아니고,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우선하여 결정

※ 자료 : 2000지역내총생산(통계청), 도로현황2001(건설교통부), 2000환경통계연감(환경부), 2000년정보통신통계연보(정보통신부), 보건복지통계연보(보건복지부), '99도시계획현황(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내부자료, 문화관광부 공문 및 홈페이지, 2001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행정자치부), 지방행정조직편람(행정자치부), 경기지방경찰청 내부자료, 교육통계연보(한국교육개발원)

7. 지방재정 부문

□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세입과 세출 규모를 나타냄

-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은 13조 3,379억원으로 전국의 16.3%를 차지하고 서울에 이어 두번째임
- 반면 1인당 세출액은 도 단위중에서 가장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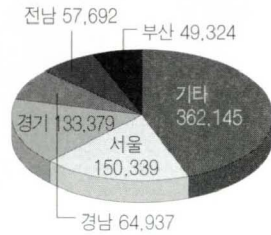
<2001년 당초예산기준>

(단위:억원)

구분	전국	경 기	서울	경남	전남	부산
1999	629,702	103,382	115,604	47,774	47,034	38,585
2000	706,934	111,705	131,880	56,311	53,453	42,439
2001	817,816	133,379	150,339	64,937	57,692	49,324

※ 자료 : 2001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행정자치부)

2001년 예산규모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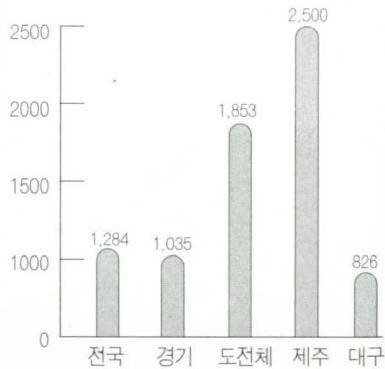
<2000년 일반+특별 최종예산 및 '99.12.31 인구기준>

(천원)

구 분	세출액(억원)	1인당 세출액 (천원)
전 국	817,816	1,284
경 기	133,379	1,035
도 전 체	496,004	1,853
최고(제주)	15,857	2,500
최저(대구)	31,448	826

※ 자료 : 2001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행정자치부)

1인당 세출액



□ 재정자립도가 높은 만큼 1인당 조세부담액이 많음

- 재정자립도는 71.4%로 도단위에서 가장 높고,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519천원으로 서울, 제주, 인천에 이어 4번째로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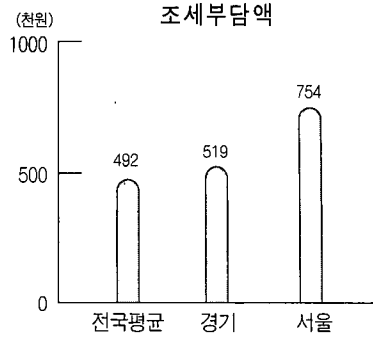
〈2001년 당초예산 및 2000.12.31인구기준〉

(단위:%,천원)

구 분	전국평균	경 기	최 고
자 립 도	57.6	71.4	95.6(서울)
조세부담액	492	519	754(서울)

※ 자료 : 2001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행정자치부)

※ 재정자립도는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수입이 증가하면 자립도가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음



제2장 주요 도정운영 성과

제2장 주요 도정운영 성과

2000년도 경기도는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라는 20세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21세기 지식·정보·문화와 환경선진국을 경기도가 앞장서 이끌어 간다는 각오로 도정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식기반경제로 상징되는 21세기의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에 있어 우리 경기도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대단히 크다.

경기도는 세계시장 점유율 40%를 자랑하는 반도체를 비롯하여 첨단 전자, 바이오 산업 등이 집적된 곳이다. 또한 전국 연구개발투자의 34%가 집중되고, 기업 연구개발인력의 40%가 근무하며, 60여개의 대학이 입지를 한 지식경제의 요충지이다.

〈첨단·신지식산업 집적〉

- ▷ 반도체산업 65%
- ▷ 바이오산업 70%
- ▷ 첨단전자 50%
- ▷ 정밀화학 37%

〈지식기반 잠재력 풍부〉

- ▷ 연구개발투자 35%
- ▷ 기업연구개발인력 41%
- ▷ 기업연구소 28%
- ▷ 대학 60개소

이러한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000년도 경기도정의 기본 방향을 “새 천년의 초석을 다지는 지식기반사회 건설”에 두었다.

그리고 도정의 세부 추진목표를 ‘지식기반 경쟁력 강화’, ‘환경보전 및 문화관광 진흥’, ‘지역균형 및 협력기반 구축’, ‘주민복지와 서민생활 향상’, ‘행정시스템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전국 최대의 중소기업 지원과 첨단·벤처산업, 관광산업 등 전략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지역 총생산 증가율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23%에 달하는 등 경기도는 IMF 극복의 선두 주자 역할을 해왔다.

이와 더불어 전국체전 5연패와 외자유치 최우수기관 선정 등 24개 부문에 대한 전국단위 중앙평가 등에서 우수한 결과를 차지하였다.

- | | |
|------------------------------|------------------------|
| ▷ 외자유치 활동(최우수) | ▷ 2000년도 수출액(전국 1위) |
| ▷ 소비자보호시책(최우수) | ▷ 상반기 물가안정시책추진(우수) |
| ▷ 신용보증 및 지원(전국 1위) | ▷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지원(전국1위) |
| ▷ 전국공예품 경진대회(단체 우수) | ▷ 전국체전 5연패(사상 최초) |
| ▷ 농산물 직거래 추진(전국 1위) | ▷ 전국 한우품평회에서 4개부문입상 |
| ▷ 인공어초 시설(전국 1위) | ▷ 숲 가꾸기 추진(우수) |
| ▷ 장애인 체육대회 6연패(사상 최초) |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책(우수) |
| ▷ 재해대책 추진(최우수) |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평가(우수) |
| ▷ 여성정책 추진 종합평가(우수) | ▷ 청소년보호대책 추진 전국평가(우수) |
| ▷ 청소년상담사업 평가(전국 1위) | ▷ 소도읍 개발사업(최우수) |
| ▷ 농림사업평가(우수) | ▷ 중소기업육성시책(우수) |
| ▷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최우수) | |
| ▷ 자치단체 종합평가 - 복지·환경개선부문(최우수) | |

그리고 지난 해 경기도는 경기북부를 통일과 신 한반도 시대의 국운을 이끌어 갈 희망의 땅으로 가꾸고, 평택항을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다.

경기도가 주도하여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고, 북부전담부지사가 상주하는 경기도 제2청사를 개청시키면서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낙후되었던 북부지역에 커다란 희망을 안겨다 주었다.

또한 서해안 시대에 대비하여 평택항에 정기항로를 개척하고, 컨테이너선을 취항시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권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민선2기 이후 경기도는 법규정에만 얽매이는 소극적인 정책집행자세를 벗어나 도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한강수계법」, 「유료도로

법」 등 20개가 넘는 법을 새로 만들고 고쳐나가는 적극적인 지방경영에 앞장서 왔다.

- ▷ 물이용부담금제도 도입 등을 위한 한강수계법 제정
- ▷ 북부지역 개발 차원에서 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경지역지원법 제정
- ▷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
- ▷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및공업배치법 등 개정
-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
-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 마련을 위한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 특별법 개정
- ▷ SOC 부문 민자유치 확대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
- ▷ BOT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
- ▷ 난 개발 방지를 위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 ▷ 광역도시계획권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법 개정
- ▷ 러브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법시행령 등 개정
-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도지사 의견 반영을 위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 ▷ 광릉 숲 보전을 위한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을 제정
- ▷ 골프장을 통한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을 개정
- ▷ 도심내LPG충전소 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조치법 제정
- ▷ 제2청사에 북부전담부지사를 두는 지방자치법 개정
- ▷ 광역전철사업 지방비부담 하향 조정을 위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
- ▷ 주행세 신설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 ▷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 ▷ 도세징수교부금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그러나 그 동안 중앙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법’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을 총 1,200회 이상 방문·설득하는 고충과 노력이 필요했다.

이러한 법과 제도의 개혁으로 경기도 1년 예산과 맞먹는 매년 3조원 이상의 혜택을 도민에게 드릴 수 있는 결과를 가져 왔다.

21세기 도전·창조·희망의 경기도 건설을 위해 2000년도에도 전력을 다해 왔으며, 이에 대한 부문별 세부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지식기반 경쟁력 강화

지식과 정보를 세계적 무한경쟁의 원천으로 하는 지식 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산업·기술·인력 등 수도권외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규제완화와 지식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혁신풍토 조성, 외자유치 등 개방적 국제교류, 전문 대기업과 특화된 중소·벤처기업 육성, 기업 금융지원 강화 등에 주력하였다.

혁신을 창출하는 산업정책 추진

이를 위해 「경기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을 마련하여 부품소재산업의 핵심기술 국산화율을 제고하고, 우리 산업의 취약점인 수입 유발적 산업구조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대학, 기업, 연구소 기술인력을 네트워크화하여 산·학·연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안양과 성남에 「경기지식산업혁신센터」를 건립하고, 이를 과천~부천~고양~파주~의정부로 연결되는 「環 경기 지식산업벨트」의 형성을 유도하였다.

경기도 지역을 중소기업과 첨단산업의 메카로

또한 첨단 벤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안양, 부천, 안산, 성남

지역을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하였으며, 판교지역을 첨단기술과 산업·환경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지식기반 집적지로 조성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다.

성장기 유망벤처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북부출장소 건물 등 유휴 공공·민간건물을 벤처 집적시설로 제공하여 벤처단지, 벤처타운, 벤처빌딩, 벤처보육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전국 최대인 1조 722억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였고,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창업촉진에 주력하여 지난 해 경기도에서는 247개 업체가 도산한 반면 3,930개 업체가 창업(1대16)하는 등 왕성한 경제활동을 보여 주었다. 특히 벤처기업과 기술집약형 지식·정보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만 전국의 20% 이상인 2,043개(2001. 3월말 현재)가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다.

담보 없는 영세상인과 중소기업도 신용만 있으면 은행에서 쉽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우리 도의 주도로 제정하였고, 2000년 말까지 12,601개 업체에 4,618억 원을 신용보증 지원하였다. 소상공인 보증의 경우 전국의 30%를 경기도에서 취급하는 등 전국 최대의 신용 지원을 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지식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

산업입지정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 특화업종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식산업의 집적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수도권의 산업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제약요인들이 있어, 지식기반 산업을 육성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공장총량제에 의한 산업활동 제한은 수출주문이 증가해도 공장을 더 지을 수 없는 등 기업활동에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들마저 다른 나라로 떠나게 만들고 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해치는 낡은 제도적 장애들을 제거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결과 외국인 투자 첨단업종의 신·증설과 첨단 국내 대기업의 증설 허용, 지방세 증과세 인하, 개발 부담금 면제·감면 등의 성과가 있었다.

인터넷을 통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시대

21세기는 인터넷이 비즈니스와 사회활동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이다. 지역 정보화와 인터넷 확산을 위해 초고속통신망을 확대 구축하였고, 세계적 수준의 사이버 상품 전시장 설치 등 「KIT 21」¹⁾ 사업을 활성화시켰으며 인터넷 비즈니스 및 전자상거래를 촉진시켰다.

전 세계를 누비면서 외자유치 세일즈 활동 추진

외자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앞장서 전 세계를 뛰어 다니는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여 지난 2년간 전국 외자유치의 20%에 달하는 75억 달러를 유치하였고, 그 결과 외자유치 활동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경기도의 외자유치 규모는 7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효과를 지니는 것이다.

또한 2년 동안 경기도의 외자유치 성과는 과거 36년간의 외자유치 실적인 28억 달러의 3배 정도가 되는 금액이다. 특히 외자유치를 추진하면서 부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 환경시설,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분야에 경쟁력 있는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유치하여 고용도 창출하고, 선진노하우도 배우고, 부족한 지방재원 문제도 해결하게 되었다.

2000년도 경기도의 수출은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340억불이 넘는 사상 최대치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무역수지 흑자에 커다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KIT 21 : 경기인터넷무역(Kyonggi Internet Trade)

2. 환경보전과 문화관광 진흥

21세기는 환경보전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이다. 경기도는 도민·NGO와 힘을 합쳐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자치단체간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토대로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을 실현하는데 강조점을 두어 왔다.

환경정책은 도민·환경단체 NGO와 함께 ·

「새 천년 푸른 경기 21」 마련과 2001. 4. 26일 팔당환경NGO합동감시단 발대식을 계기로 각종 환경단체 참여를 점차 확대시켜 「행정의 틈새」를 민간분야가 보완하는 환경공동체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환경보전기금 170억원을 조성하여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자치단체간 협력을 토대로 상·하류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한강수계법 제정

2,200만 수도권 시민의 젖줄인 팔당상수원 관리를 위해 서울과 인천시를 설득하여 한강수계법을 제정하였으며, 이제 도민들의 폭넓은 이해 속에 물 이용 부담금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이는 팔당상수원 지역주민과 물을 공급받는 팔당하류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Win-Win 정책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과거 역대정부가 그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제도적인 뒷받침은 하지 못한 채 규제일변도의 상수원 관리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수질악화와 함께 선량한 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왔던 문제점을 일거에 해소한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오는 2005년까지 4조4천억원 규모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수질개선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고,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게는 영농비와 주민사업비 등으로 매년 700억원 규모를 지원함으로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수도권 주민에게

는 1급수의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2000년도에는 물 부족에 대비한 절수기와 절수디스크 무료 설치를 추진하여 연간 600만톤인 491억원의 절감효과를 거양하는 등 「범도민 물 절약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누수탐사와 노후관 개량 등을 통해 상수도 누수율도 10% 이내로 낮추어 나가고 있다.

※ 600만톤은 과천시민(7만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

환경기초시설 건설은 광역적으로 ·

환경기초시설은 꼭 필요하나 주민 모두가 싫어하는 혐오시설로 대접 받고 있어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예산의 중복투자예방, 운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는 20개 시·군·구를 8개 권역으로 묶어 2,380톤 규모의 광역 소각장 건설을 추진함으로써 건설비 및 연간운영비 3,000억원을 절감하였다.

또한 전국 최초로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가 환경기초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광역자치단체간 빅딜을 성사시켜 건설비 2,065억원과 시설운영비를 대폭 절감하게 되었다.

광명소각장에서 서울시 구로구 쓰레기 1일 150톤 반입처리(2000.4.18)
서울시 기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광명시 하수를 1일 약10만톤 처리

특히 도에서는 광역 소각시설을 유치하는 시·군과 인접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단독소각시설보다 상향조정(국비 30→50%, 도비 21→25%)할 수 있도록 그 동안 수 차례

에 걸쳐 중앙에 건의한 결과 2001. 1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어 광역
화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자유치로 재활용시설의 선진기술 도입

수도권 발생 음식물쓰레기의 깨끗한 처리와 비용절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외자유치에 의해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소각장 건설비 3,000억원을 줄일 수 있게 되었고, 향후 25년간 1조
300억원 이상의 운영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단내 배출업소 민원해결은 지방차원에서

공단내 배출업소와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반
월·시화 등 산업단지내의 배출업소 지도단속권 이양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방이양위원회에서는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지방위임 방안을
마련하여 위임을 추진하도록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지역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발족
하여 운영하는 등 지방 차원에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국가기준 보다 나은 대기질 확보를 위해

경기도는 수도권의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대기오염 수위가 높다. 도
에서는 국가기준 보다 나은 깨끗한 대기질 확보를 위해 지역대기환경
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대기 자동측정망을 확충하여 오
존경보제를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한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를 2002년 월드컵이 개최되는 수원시 등 6개시에 143대
를 보급하여 운행중에 있으며, 2007년까지 대기환경규제를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관광’이 골똥 없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각광을 받
게 되었고, ‘문화’는 다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

경기북부지역을 통일에 대비한 희망의 땅으로 ·

경기 북부지역은 같은 수도권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과 산업 등이 전국에서도 가장 열악한 실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이를 극복하여 경기 북부지역을 기회의 땅, 희망의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북부 현안해결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

〈경기북부지역 낙후실태〉

- ▷ 1인당 지역내총생산 : 전국평균의 63.4%에 불과('98년 기준 580만원)
- ▷ 재정자립도 : 전국평균(57.6%)에 크게 미달(연천 25%, 기평 33%, 동두천 49%, 양주 54%)
- ▷ 1인당 도로연장(m) : 북부 1.43, 전국 1.85, 강원 5.03, 충북 4.12
- ▷ 도로에 대한 1인당 국가투자액 : 전국평균(216천원)의 40%(87천원)

그간의 노력으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을 우리도가 주도하여 제정하였고, 구조조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2000. 2. 25일 金大中 대통령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전담부지사가 상주하는 경기 제2청사를 개청시켜 북부 주민들이 수원까지 오는 불편이 해소되었으며, 경기북부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 추진과 현안해결이 가능해졌다.

※ 그 동안 연천, 포천주민이 온천이나 여관업 등록을 위해 수원에 있는 도청을 오가는데만 5시간이상 걸려 하루를 허비

「접경지역지원법」제정에 이어 「접경지역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유치, SOC 투자 등이 확대되고,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경기북부의 접경지역까지 수도권으로 묶여 통일기반 조성의 지역 낙후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지장을 받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000년의 6.15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로 경의선 철도 복원사업이 착공됨으로써 경기 북부지역은 통일의 전진기지로써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99. 4월 수도권국제종합전시장을 고양시에 유치한 것은 북부지역 발전의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이는 건립과정에서 8만여 개가 넘는 일자리 창출과 4조원에 달하는 생산효과가 예상된다. 건립후에도 고양시를 비롯한 인근지역의 관광·유통·서비스 등 관련 산업도 연쇄적으로 크게 일어나 수도권의 무역과 관광 중심지로 발전될 것이다.

2000. 2월 건립단 구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시장 건립이 시작되면서 7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 현재 세계적 수준의 전시장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추진중에 있다.

경기 동부지역을 전원관광벨트로

축령산과 같이 자연경관이 수려한 동부지역을 관광벨트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지역에 대한 규제개선과 다른 지역과 쉽게 오갈 수 있는 간선 교통시설 확충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수도권 관광지조성사업 규제완화를 위해 중앙부처에 계속적으로 건의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까지 성사시켰다. 그러나 일부 지역의 반대로 보류된 상태이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기남북부가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 외곽순환도로의 조기 건설과 경기순환철도 건설을 위해 중앙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춘천 고속도로, 경춘선·중앙선 전철화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평택항을 허브항구로 육성하여 동북아지역의 무역중심지로

중국의 WTO 가입과 국제교역에 있어 동북아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부족한 도로 및 철도시설 확충을 위해 ·

부족한 도로시설 확충을 위해 수도권 광역도로망 구축사업으로 천호대교~토평간 등 18개 사업에 1조 6,131억원을 투입하였으며, 분당~오포 등 주요 지방도로망 52개사업에 1조 7,761억원을 투입하여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시설만으로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철도시설을 적극 확충해 나가고 있다. 우선 수도권내 철도시설 확충을 위해 2008년까지 총 4조 8,554억원을 투입하여 중앙선 등 5개 노선에 대한 대도시권 광역전철망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과중한 지방부담 등으로 그 동안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지방비 부담율을 44%에서 25%로 하향 조정시켜 광역전철 건설에 7,260억원의 지방비 부담을 덜게 되었고, 각 구간마다 공사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되었다.

※ 7,260억원은 북부지역 시·군마다 1만명 규모의 체육관을 하나씩 지을 수 있는 금액이며, 주민1인당 35만원의 혜택을 준 것과 같음

또한 중소도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의정부시, 하남시 등에 대하여 경전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도권 교통체계를 거점간 지역간을 방사순환형으로 연결시키는 경기순환철도건설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건교부와 함께 공동용역중인 수도권종합교통체계조사 용역에 포함하여 준비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 해소

또한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버스노선 정비, 경기~서울간·경기~인천간 광역직행버스 확대, 광명·서울시(구로, 금천구) 택시사업구역 통합, 다양한 택시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 왔다. 그러나 대중교통 서비스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의 광역화가 시급한 실정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 국회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30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해왔던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1971년부터 30년간이나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도시발전을 저해 하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중앙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결과, 경기도의 의견이 대폭 반영된 정부방침이 '99. 9월 확정 발표되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추진중에 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인구 1천명 또는 주택 300호 이상인 대규모 취락과 경계선 관통취락 등 구역지정이 불합리하게 된 지역에 대한 우선해제를 위하여 21개 시·군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12개시·군 40개 마을에 대한 우선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2001. 4. 19일 현재 4개시 11개 마을이 해제되었고, 나머지 취락에 대하여도 금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개선하기 위해 일선 군부대를 하나하나 방문

화장실, 농기계 창고조차 군부대 동의 없이는 설치할 수 없는 군사시설보호 구역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선 군부대를 하나하나 방문하고 국방부와 국회에 계속 건의하여 여의도의 6배인 1,585만평의 규제를 해결하였으며,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강원도와 공동용역을 발주하였다.

농가소득을 높여주고,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

농축수산업부문에 있어서는 농가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가는 농산물 직거래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수익의 10%인 870억원의 소득증대 효과를 거두었고, 소비자들에게는 기존 가격의 11.7%인 1,018억원을 싸게 공급하였다.

또한 도내 농특산물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30개 품목에 대해 우리도가 개발한 “경기도지사 인증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사이버농장을 통해 9개 품목 780개 상품을 소개

이천 · 여주 · 광주를 도자기 메카로 ·

경기도는 도예산업의 72%가 모여 있어 한국 도자기의 총 본산인 이천 · 여주 ·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2001년 세계 도자기 EXPO를 준비해 오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크리스탈 경매장에서 75만달러에 팔린 철화용문호 등 세계에서 알아주는 명품 도자기를 만들던 곳이다.

도에서는 그 동안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고, 2000. 10. 10일부터 13일간 프레 엑스포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밖에도 양주별산대놀이 등 지역전통문화축제를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문화재를 잘 정비하고, 문화관광 자원을 전략산업으로 ·

또한 경기도는 풍부한 문화유산을 정비 · 복원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 동안 방치되었던 호국의 성지인 남한산성과 正祖의 문화증흥과 개혁의지를 담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성곽과 행궁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조선조 최대의 국보사찰로서 태조 이성계의 궁궐이었던 회암사지를 복원 · 정비하고 있다.

외래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대비해서 ·

2010년이면 외래 관광객 1,000만 시대가 열린다.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모이는 수도권 지역에 부족한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서울 · 인천과 치열한 경쟁 끝에 외국인관광숙박단지를 고양시 장항지구 에 유치하였고, 세계 도자기 EXPO와 2002 월드컵 경기에 대비하여 도내 유희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경기 투어텔을 지정(4,079실)하였다.

이제 경기도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자고, 먹고, 쇼핑하는 수도권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장항지구 에 유치한 관광숙박단지는 30만평 부지에 8,000개의 한식과 양식이 조화된 객실을 갖춘 중저가 종합 관광타운으로 개발되며, 건설과정에서 3

만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 8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완공 후에는 매년 10억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일 것이다.

문화예산을 전국에서 최고로

2000년도 경기도는 전국 최대규모로 도 전체예산의 6%인 1,733억원의 문화예산을 확보하여 공립테마박물관,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 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전국 최초로 도내 50개 도서관을 전산망으로 연결한 사이버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1,000억원 목표로 경기문화재단기금(832억2,600만원까지 조성)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2002 월드컵의 완벽한 준비와 전국체전 5연패 달성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탓에 중도포기에 이르렀던 월드컵 수원경기장 건설은 도가 직접 나서 독립법인을 만들어 추진함으로써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고, 세계인의 한마당 큰잔치로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시·군별 1운동 1체육관 건립과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1,000억원 조성 등을 통해 생활체육 기반 조성과 엘리트 체육 육성에 주력한 결과, 전국체전 5연패 달성과 더불어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 8개중 4개를 경기도 출신선수가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900만 경기도민이 하나되어 힘을 모아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3. 지역균형 및 협력기반 구축

남북교류와 한·중협력이 강화되면서 경기북부와 서해안 지역의 체계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해지고 있다. 또한 경기도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도시확산으로 도내 지역간 불균형과 모순이 심화되면서 막대한 사회비용이 발생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 종합적인 비전에 입각한 발전전략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만 지역은 21세기의 새로운 물류기지와 산업지대로 부상되고 있다. 경기도는 여기에 대비하여 평택항을 우리 나라 제일의 항만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2000. 11월초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선 취항식을 갖고 국제화물운송을 시작함으로써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권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을 부산·광양항만 이용시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줄여 연간 8,5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金大中 대통령께서도 우리도 방문시 수도권과 중부권을 진입하는 거리가 가깝고 세계최대의 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과도 최단거리에 위치한 평택항이 환황해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신 바 있다.

우리 도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항만과를 신설하고 항만건설과 운영을 전담할 지방공사를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다핵연합형 21세기 공간구조를 만들고,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공간 확보

경기도가 동북아의 중심지역으로 발전하고, 수도권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서울시와 주변 지역 거점들간 기능분담과 연합의 21세기형 공간구조 형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울 집중이 아닌 다핵연합도시 형태의 광역도시계획을 건교부 및 서울·인천과 함께 수립중에 있다.

경기도는 2004년까지 도내 주택 보급률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0년도에 4개 지구 278만평의 택지를 개발해 공급하였으며, 매년 주택 10만호를 건설하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98년 이후 48,561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였고, 도시 저소득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데 있어서도 난 개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선계획 후개발」원칙을 견지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도·농통합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현재 추진중에 있고, 준농림지역에 대한 시·군의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등 교통·학교·상하수도·문화공간 등 완벽한 기반시설을 전제로 택지개발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다.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자치단체간 협력강화와 획기적 제도 마련

수도권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인천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동안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의왕~과천 고속도로를 우면산까지 연결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하는 등 12개 도로사업을 공동추진하기로 하였다.

지난 해 우리 도에서는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제도마련과 관련법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한편으로는 설득하여 도의 입장을 관철해 냈다.

광역교통시설 및 지역간 교통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교통시설 부담금제를 신설하고 그 부담금 중 우리 도와 국가의 배분비율을 60:40으로 한 것은 특히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2005년까지 1조 600억원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수도권 지역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 1조 600억원은 의왕~과천 고속도로 8개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금액임

또한 우리 도의 주도로 「유료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관리권의 매각이 가능해짐으로써 1억불 규모의 외자를 유치해서 이를 다른 도로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부족한 SOC 확충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여 농민과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전국 최초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여 트랙터 사용경비를 26% 절감하였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농축산물 규격화, 산지유통센터와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 등을 추진하였다.

농축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화훼, 과실 등 10개 품목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지정하여 증점 육성하고 있다.

집중호우·태풍·구제역등을 슬기롭게 극복한 2000년도 경기농정

2000. 7월의 집중호우와 8월의 두 차례에 걸친 태풍의 영향으로 벼가 물에 잠기고 쓰러지는 등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도 405만석의 쌀을 생산해 5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함으로써 식량의 자급자족과 국가경제안정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도내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인 노력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친 우박피해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은 매우 뜻깊고 소중한 일이 아닐 수 없다.

4. 주민복지와 서민생활 향상

경기도의 실업률은 1999. 1월 10.2%에서 2000년도 초에는 5.6%로 감소는 되었으나, 불완전 취업자와 장기실직자가 증가하면서 저소득층이 늘어났고, 사회구조와 의식의 변화로 여성·노인·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욕구가 증대하였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로 소방대상물과 재난안전시설물이 급증하였다.

따라서 주민복지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계층별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 추진이 필요하였고,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대책이 긴요한 실정이다.

전국최대의 실업대책예산을 투입하여 실업극복에 총력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실업대책예산을 투입(1,508억원)하여 소자본창업 지원과 취업정보센터 운영, 해외취업 알선, 고용촉진훈련 등을 실시하는 한편 일자리를 확대하고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한 결과 실업률이 2.7%까지 감소하였다.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건설일용근로자와 저소득층을 함께 보호하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많은 도민들로부터 격려의 편지와 갈채를 받기도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

저소득층 생계안정대책으로 생계유지 곤란 자에 대한 기초생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자활지원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20만명의 도민들에게 2,5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하였다.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는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대

도에서는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전국 최초로 여성정책국과 제2청 여성국을 설치하였으며,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 확대 운영, 여성공직자 전보할당제, 도인사위원회에 여성공무원 임명 등 여성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3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여성의 안정된 직장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농촌과 공단지역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배치하였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의료서비스 확대

노인성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 홀로 사는 노인 응급구조시스템 운영,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확대 설치, 유급 가정

도우미제 도입, 보건소에 한방진료실 시범 운영 등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법정 고용비율을 경기도의 행정기관이 솔선하여 달성(’99년)하였으며, 이를 산하기관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00년에는 장애인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복지과를 전국 최초로 신설하였으며, 장애인들의 이동·접근이 용이하도록 장애인편의시설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등을 각각 100억원 이상 조성하여 복지부문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과밀학급·학교급식·부족한 교원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

도민의 오랜 숙원인 경기교육대 설립과 과밀학급의 조기 해소 및 학교급식의 확대를 통해 도의 자라나는 세대가 더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역내 과밀학급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서 도에서는 학교용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법」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500세대 이상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편법을 통해 학교용지 부담금을 회피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법개정으로 300세대 이상이면 부담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매년 2,301억원 규모의 재원이 확보됨으로써 최소한 45개의 학교를 매년 신설할 수 있게 되는 등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에 158억원을 우선 투자하여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100% 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2002년까지는 중학교 급식시설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리고 경기교육대 설립 문제는 인천교대를 분교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으로 국가예산에 까지 반영했었으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바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인천교대에서 다시 추진중에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와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중전에는 어른들만 참여하던 위원회에 실수요자인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차세대청소년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해 왔으며, 청소년육성기금으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1조 6천억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항구적인 수해복구에 전념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난과 재해로부터의 안전이 매우 중요하다. 경기도는 2년 연속 발생한 사상 유례없는 수해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고 실의에 빠져있는 주민에게 희망을 주고 수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한해 동안 수해복구 사업을 도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해 왔다.

사실 지난 2년간 우리 도에서는 과거 10년간 투자금액보다 2배나 많은 1조 6천억원의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여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2000년도의 경우 시간당 127mm라는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보다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특히 용인지역의 수해와 북부지역에 대한 발빠른 대처로 청와대와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중앙부처로부터 역시 경기도가 가장 앞서가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해 우리 도는 재해대비 업무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도민 부담 없는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

지역산업 발전과 실업대책, 교통·환경·문화 교육 등 도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방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국회와 중앙부처를 뛰어 다니며 협의하고 때로는 설득을 통해 국비 지원 확대,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비 부담 감소, 국세의 지방 이양 등과 같은 도민 부담 없는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2000년도에는 '99년보다 26%가 많은 7,258억원의 국가지원을 받게 되었고, 국세인 교통세의 3.2%를 지방주행세로 전환하여 689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두었으며, 지방교부세율을 13.27%에서 15%로 상향조정하여 매년 1,100억원을 더 받게 되었다.

※ 지방주행세 689억원은 매년 행주대교 1개소를 더 건설할 수 있는 규모임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시·군별로 감채기금제도 도입을 권장하고 있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전면 검토하여 연도별·부문별 투자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투융자심사제를 강화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다.

그 동안의 도정 운영성과는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높여주는 계기

이러한 도정 운영성과는 중소기업 육성과 외자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도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소득기반을 튼튼하게 하였다.

또한 환경보전을 통해 쾌적한 삶의 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문화기반을 확충하고 각종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도민들의 안전한 생활보장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소외 받아왔던 북부지역에 대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 기반을 만들어 냈으므로 북부지역 주민에게 희망을 안겨다 주는 계기를 만들어 냈고, 여성·노인·청소년·이동·장애인 등 각종 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통해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도민과 함께 감시하는 소방법규 위반업소 공개제도 도입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법규 위반업소 인터넷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커다란 효과를 보았으며, 이를 위생업소와 환경오염 업소에 대해서도 확대·공개함으로써 전 도민의 참여를 통해 적은 인력으로 위반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성공적인 수범사례가 되고 있다.

5. 행정시스템 혁신

민선 2기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11,255명(정규직 6,942, 비정규직 4,313)의 인력이 감축되었으며, 공기업에 있어서도 경영개선, 기구축소, 인력 13% 감축, 명예퇴직제 등이 도입되었다.

또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법령에 근거 없는 265개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한 바 있고, 규제개혁에 민간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민간중심의 규제혁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지난해에는 1999년도까지 일구어 낸 기틀을 바탕으로 도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과 행정체계 및 자치역량을 배가하는데 주력해 왔다.

세계 최고 권위의 ISO 9001, 일반행정부문·소방행정부문 모두 획득

도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해 초에는 이에 대한 성과로 세계 최고 권위의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다. 또한 소방분야에서도 전국 최초로 도 소방본부가 ISO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해 친절·서비스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공무원 친절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경인방송국을 경기남부(수원)에 설치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들의 정보 공유를 위해 「경기 TV 방송국」설립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iTV의 방송권역을 우리도 남부지역까지 넓히고 경인방송으로 재출범하도록 지원하고 수원으로 보도본부를 옮기게 되었다.

행정부문에 대한 정보화 가속화

행정내부에 있어서도 정보화 시대에 맞는 행정시스템 혁신을 위해 전자결재제도를 정착시켰고, 전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였다. 또한 도본청과 제2청간 화상회의를 확대하였고, 매일 실시되는 월례조회도 월별로 교차하여 개최하고 영상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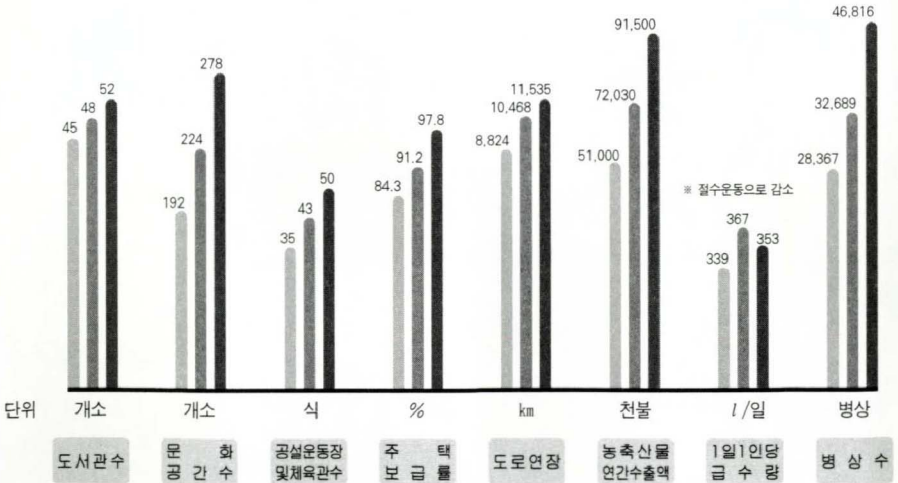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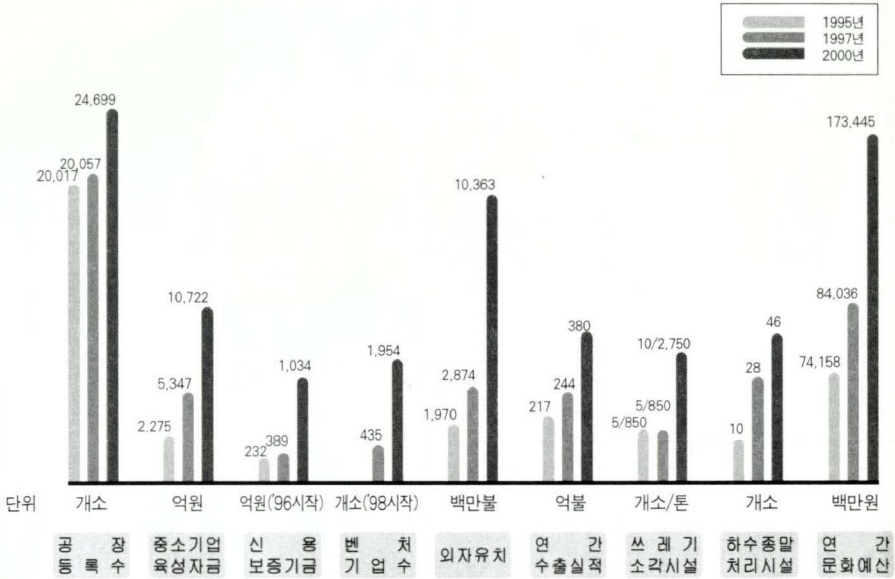
중앙사무 지방이양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사무 지방이양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지난해에는 총 1504건의 지방이양사무를 발굴하여 중앙에 이양·건의하였다. 특히 농림부로부터 종자관리소 평택지소의 사무를 이양 받으면서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함께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앙사무 지방이양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여 지방의 부담을 덜어 나갈 계획이다.

공직사회 경쟁원리 도입 확대

그리고 공직사회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공부문 경영혁신 평가를 실시하고, 경기포럼 운영, 근무성적 실적 가점제 도입, 목표관리제 운영, 성과급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통계로 본 도정 성과



여 백

제3장 분야별 도정성과

제1절 지식기반 경쟁력 강화

제2절 환경보전과 문화관광 진흥

제3절 지역균형 및 협력기반 구축

제4절 주민복지와 서민생활 향상

제5절 행정시스템 혁신

제1절 지식기반 경쟁력 강화

혁신을 창출하는 산업정책 추진

1. 중소기업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기술혁신센터²⁾ 설립·운영

-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필요한 산·학·연 기술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술인력과 연구시설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관련산업의 기술혁신과 신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기술혁신센터 설치 운영

- ▷ 성균관대학교 TIC : 정보통신부품핵심소재기술분야
- ▷ 수원 대학교 TIC : 전자부품핵심소재기술분야

⇒ 2000년도에 특허출원 11건, 기술지도 42건, 창업지원 13건, 장비 활용 53건

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산·학·연 컨소시엄, 지역협력연구센터(RRC³⁾),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KRRC⁴⁾)를 운영하여 중소기업에 기초과학분야 기술이전 및 지식기반시설 확충

- ▷ 전자재료부품개발(한양대) ▷ 천연신기능성소재(명지대)
- ▷ 환경청정기술(수원대) ▷ 의약(성균관대) ▷ 신소재응용(경원대)

2) 지역기술혁신센터(TIC) : Technology Innovation Center

3) RRC : 지역협력연구센터(Regional Research Center)

4) KRRC :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Kyonggi Regional Research Center)

- 안산테크노 파크 조성을 통한 산·학·연·관 공동 컨소시엄으로 공동연구 개발(13과제), 창업보육(55개 업체) 등 기술개발 보급
- ⇒ 2000년도에 특허출원 241건, 제품개발 583건, 기술이전 187건, 공정개선 417건

3. 「경기벤처펀드」 운영으로 직접 투자방식의 벤처기업 지원

- 성장기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시 담보 및 보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 금융지원 제도로 120억 규모의 경기벤처펀드1호를 '99. 5. 17일 전국 최초로 결성하여 2005. 4월까지 6년간 유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실시
- ⇒ 2000년도 말까지 25개 업체에 116억원 투자

4. 전문 개인투자자들의 모임인 「경기엔젤클럽」 결성·운영

- 유망 벤처기업에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 회계사 등 전문 직업인 중심의 개인투자자들의 모임인 경기엔젤클럽을 전국 최초로 '99. 5. 3일 결성
- ⇒ 2000년도 말까지 총14회 50개 벤처기업을 엔젤마트에 상장하여 32개 벤처기업에 154억원의 투자 유치 성사

5. 유희 공공·민간시설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전환

- 21세기 국가경제를 선도할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 구조를 재편하고 기술·지식 집약적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안양시와 공동으로 경기지식산업안양센터 건립 추진(연면적 3,500평 규모, 2000. 1월 착공, 2002. 6월 개소 목표)
- 8개 유희 공공시설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제공

- ▷ (구)북부출장소 건물에 경기북부벤처센터 설치·운영
- ▷ (구)가축위생시험소에 벤처타운과 시민편의시설 입지
- ▷ 건설본부 부지를 벤처빌딩과 첨단아파트형공장으로 건립 추진
- ▷ (구)부천 원미구청사를 부천벤처창업보육센터로 활용
- ▷ (구)성남 국제시장 건물을 성남벤처빌딩으로 운영
- ▷ (구)안양시 만안보건소 건물에 만안 벤처센터 설치·운영
- ▷ (구)군포시 당정동사무소 건물에 군포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
- ▷ (구)안성시 금광동사무소 건물은 벤처집접시설로 추진중

○ 민간시설 27개소를 활용하여 110개업체 입주(계획 444개업체)

※ 신축건물 지정 6개소, 기존건물 21개소 지정



경기벤처빌딩 수원센터 설립

○ 입지여건이 좋은 수원, 성남, 고양시 등에 도심지 민간 유희빌딩을 임차하여 벤처빌딩을 조성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성장기 유망벤처기업들에게 제공 (수원시는 2000. 12. 6일 개소, 성남·고양은 2001년에 개소 예정)

- ▷ 입주업체는 사업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
- ▷ 최소 28평에서 최대 320평(전용면적 180평)까지 제공
- ▷ 임대방식은 선지원 후회수 방식의 투자개념을 도입, 임대료에 상응하는 주식을 납부하도록 다양화

6. 전국 최대의 중소기업 지원자금 조성 및 지원

- 중소기업지원기금 조성 : 1조 722억원(전국 최대 규모)
 - 용자 위주에서 우수기술 보유기업 등에 투자지원까지 확대
- 300억원 지원(벤처펀드 50, 벤처집적시설 250)
 - 자금지원대상 확대 : 제조업위주 ⇒ 지식기반서비스업 포함
- 604개업종 → 674업종(중 70업종, 지식·정보서비스중심)
- ⇒ 2000년도에 247개업체가 도산한 반면 3,930개 업체가 창업(16대1)을 하여 왕성한 경제활동을 보여줌(2001. 3월 현재 벤처업체만 1,954개가 경기도에서 활동)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과 전국 최대의 중소기업 신용보증

-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상공인들의 신용보증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주도하여 '99년도에 「신용보증재단법」을 제정
 - 생업적 가내수공업, 유통업 등 소규모 자영업자의 신용보증
※ 2000년말까지 12,601건 4,618억원 보증
- ⇒ 전국 소상공인 보증의 30%를 경기도에서 취급하는 등 전국최대의 신용 지원

8.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조기 건립 추진

- 중소기업에 대한 고도기술과 창업보육, 경영정보, 국제화 등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수원) - 조기 건립을 위해 6개월 단축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 ▷ 위치 및 부지면적 :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 111-8번지 일원
30,276평
- ▷ 연건평 : 14,428평(지상 16층, 지하 3층)
- ▷ 주요 입주시설 : 20개의 중소기업지원기관과 단체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11개 중소기업 지원기관
 - 시험계측인증기관(2개업체) : (주)IST, (주)Lab frontier
 - 금융·창업투자·컨설팅사, 회계·법률 서비스기관, 시험인증·신뢰성
평가기관, 우체국 등 추가 입주 유치 중

⇒ 2001.7월 개원되면 중소기업의 경영·기술·세무·회계 등 종합
서비스 지원

9.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우수기관 차지

- 2000. 6. 16일부터 12일간 제30회 경기도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
한 결과 총 217종 4,179점이 출품되었으며
- 우수작품 46종 1,998점을 선정하여 전국공예품대전에 출품하여
전국 209종 입상중 28종이 경기도에서 입상되어 경기도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됨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

10. 수도권정책 전환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결실

- 수출주문이 증가해도 공장을 더 지을 수 없고, 외국인 투자자들
마저 다른 나라로 떠나게 하는 수도권 규제, 국가경쟁력 강화 차
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

-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대통령님께 직접 건의하는 등 끈질긴 노력으로 외국인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 등 조금씩 개선

- ▷ 외국인 투자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 ▷ 지방세 종과세 인하
- ▷ 첨단 국내 대기업 증설 허용 ▷ 개발부담금 면제·감면
- ▷ 건축물 용도변경 완화 ▷ 농지전용허가제도 개선
- ▷ 공장설립 제한횟수 완화
- ▷ 공장설립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산업입지분야 규제완화
- ▷ 대학·연구소의 실험실 공장 및 창업보육센터 공장등록
- ▷ 공장건축 총량제도 개선(계획입지 제외 등)

- 경기도를 21C 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육성하고 규제위주의 수도권 정책을 지식기반 사회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고자 「수도권정책 전환 연구용역」추진
- Arthur Andersen + James Lang Lasalle과 용역계약 체결
- ⇒ 2001년에도 시장원리에 입각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연보전권역」 폐지, 「북부지역 수도권에서 제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11. 판교지역 등 지식기반 집적지 조성 추진

- 판교지역을 인구집중을 유발하지 않는 ‘저밀도’의 환경친화적인 첨단지식기반 벨리로 조성하고, 안산·부천·성남 등에 벤처 군락지 조성 추진
- 첨단 벤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안양, 부천, 안산, 성남지역을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자금·인력지원과 지방세 감면 등 실시
- ⇒ 수원, 고양, 과천을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 추가 지정 추진

12. 권역별 특화업종 중심의 산업단지 조성

- ▷ 안산~평택축(철괴·금의·발안) : 자동차 부품, 제약 등 필수산업단지
- ▷ 이천~여주축(간매·장안) : 도자기, 전자부품 등 무공해 소규모단지
- ▷ 파주~포천축(출판문화·오산·양문·동두천·검준·신평·탄현)
: 통신, 출판, 연석 등 지역산업 집산화

- 안산~평택축에 자동차 관련 필수 산업단지 64천㎡ 준공 및 정밀 화학 업종 유치를 위한 942천㎡의 조성 공사 추진
- 이천~여주축에는 59천㎡의 무공해 소규모 입주조성을 추진하여 도자기 관련업종의 입주 확정

13. 지역·계층·소득간 정보화 격차 해소

-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일부에서는 지역간, 계층간, 소득간 정보화 격차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음
-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정보화 교육 자원봉사자 406명을 투입하여 주부·노인·청소년·장애인·농어민 등 여건상 정보화에 뒤처지기 쉬운 계층을 대상으로 2002년까지 정보화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오지지역에 220회선(8개군)의 무선 초고속망을 건설

- ▷ 교육장소 : 도·시·군·구청 교육장, 주민자치센터, 여성회관, 복지관, 도서관, 학교, 학원, PC방, 전화국, 우체국 등
- ▷ 교육인원 : 주부 162천명, 노인 15천명, 농어민 8천명, 초·중·고등학교 583천명, 근로자 6천명, 장애인 7천명, 저소득주민 56천명 등

⇒ 2000년도에 총 87만 명의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 실시

14. 인터넷무역(KIT21) 활성화

- 과거의 무역 행태만으로는 기업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인터넷 시대에 도내 중소기업들의 인터넷 무역에 대한 모든 것을 지원해주는 One-Stop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99. 5월 「KIT센터」를 설립
- 2000년도에도 인터넷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및 상품홍보 등 마케팅 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43건의 2,033천불의 수출거래 알선

- ▷ 경기인터넷 무역센터를 통한 수출거래알선 지원 : 43건 2,033천불
- ▷ 인터넷 무역마인드 형성을 위한 교육, 세미나 개최 : 44회 1,207명
- ▷ 해외바이어 D/B구축 및 정보제공 : 5,680개업체
- ▷ 전자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제작 : 269사 1,079개 상품

개방형 경제정책 추진

15. 투자가를 찾아가서 모셔오는 적극적인 외자유치 활동 전개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도지사취임식을 투자설명회로 시작한 이후 지구를 3바퀴나 돌며 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696건에 75억달러의 외자를 유치



외자유치 투자 설명회

※ 75달러 외자유치는 전국 외자유치의 20%에 해당하는 실적이고, 통상 외자유치 1억 달러 당 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볼 때 7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 셈임(과거 36년간 실적인 28억 달러의 3배 정도)

- 프로젝트별로 필요한 투자의 규모와 내용을 조사하여 그에 맞는 투자를 발굴하고, 유관기관과 시·군, 중소기업 등이 공동 참여하는 유치활동 전개
 - 투자유치 전문가 채용 및 전담기구 설치, 조례 제정, 다양한 인센티브 개발 등 외자유치 기반 조성
- ⇒ **전국단위 중앙평가결과 외자유치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 수상**

16.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기반 조성 강화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의 국제 박람회에 경기도관을 설치·운영하여 도내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별참가업체 부스임차료 지원, 시장개척단 및 미니세일즈단 파견, 해외바이어 및 마케팅 에이전트 초청 상담 개최 등을 추진해 왔음

- ▷ 국제박람회 경기도관 참가(24회 202개업체)
 - 133백만불 계약, 877백만불 상담
- ▷ 개별참가업체 부스임차료 지원(140개업체)
 - 59백만불 계약, 217백만불 상담
- ▷ 시장개척단·미니세일즈단 파견(9회 70개업체)
 - 7백만불 계약, 107백만불 상담

- ▷ 해외바이어·마케팅에이전트 초청상담(12회 572개업체)
 - 8백만불 계약, 30백만불 상담
- ▷ 수출기업 애로수렴 정책대안 발굴, 중앙건의 등 해결
 - 수출애로 수렴 94건, 해결 60건, 추진중 31건, 불가 3건

⇒ 그 결과 매년 수출실적이 급성장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99년 보다 113억불이 늘어난 380억불을 수출하여 전국 수출액의 22.0% 차지

('98) 210억불(전국의 16.3%) ⇒ ('99) 266억불(18.5%)
⇒ (2000)380억불(22.0%)

제2절 환경보전 및 문화관광 진흥

도민과 함께하는 선진 환경 구현

1. 환경NGO⁵⁾의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 경기도와 NGO는 환경정책을 수행하는데에 동반자로서 역할을 분담하고, 도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환경보전 기금」에서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활동 조사·연구비 등 지원 (50개 단체에 5억 4,000만원)
-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푸른경기21 실천사업을 확대하고, 각 권역별로 민간환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민·관 공동체 형성
 - ※ 21세기 환경NGO시대를 맞아 민간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행정의 틈새”를 민간이 보완하는 새로운 「환경정책패러다임」 마련

⇒ 「새 천년 푸른경기 21」을 바탕으로 NGO 등 시민주도의 모니터링 강화

2. “지역환경 테크노피아” 구현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센터」설립

- 지역특유의 환경기술개발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대학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민간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체제의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3개소를 용인, 시흥, 안산에 설립하여 센터별로 연구과제를 개발하여 수행중

5) NGO :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로서 환경단체 등 비영리 민간조직

- ▷ 경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 명지대 주관 (2000. 7. 7 개소)
- ▷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 한국산업기술대 주관 (2000. 8. 25 개소)
- ▷ 안산환경기술개발센터 : 한양대 주관 (2000. 11. 9 개소)

⇒ 경기도 특유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환경 테크노피아 구현 기반구축

3. 환경산업 신기술 도입을 위한 「환경 닥터제」 운영

- 기술이 없고 방법을 몰라 환경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업소를 환경전문가가 나서서 도와주는 「환경닥터제」 실시(대학교수와 전문 환경관리인 등 41명으로 4개의 「기술지원반」을 구성하여 지원)

⇒ 2000년도에 53개 업체에 대한 생산공정 등 개선 지원

4. 「광릉 숲 보전 실천계획」 마련

- 「광릉 숲」은 530여년간 천연상태로 보전된 한국최고의 산림생물의 보고 였으나 '87년 광릉수목원 개장이후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급격히 파괴
-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에 봉착
- 광릉 숲 보전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서 환경NGO 및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보전방안 마련

- ▷ 영향권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완충지역)으로 지정
- ▷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권한 회수
- ▷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주민지원 사업기금」으로 지원

⇒ 경기도가 주도하여 2001.2.28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정

5. 한강수계법 제정을 통한 물이용부담금 부과와 주민지원사업 확대

- 2,2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한강 수질개선은 역대 어느 정도라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으나 수익자부담 원칙의 「한강수계법」 제정으로 획기적 해법 마련
- 경기도민들만 부담하던 수질개선 비용을 물이용부담금제를 도입하여 서울·인천 등의 물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2005년까지 4조4천억 원 규모의 재원이 확보되어 수질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 가능

⇒ 수질보호구역 주민에게는 주민지원사업 확대(매년 700억원)로 민원의 근원적 해결, 수도권 주민에게는 1급수의 맑은 물 공급(상·하류 주민 모두가 만족)

6. 「경기 10·10 물절약 운동」의 대대적 전개

- 무조건적으로 공급하기만 하던물관리 정책을 도민의 수준 높은 인식을 바탕으로 절약을 통해 물의 낭비를 막는 수요위주로 전환
- 누수율을 10% 이하로 줄이고, 수도물을 10%이상 절약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 「경기 10·10 물절약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도내 전 가구 수세식 변기에 절수기와 수도꼭지 절수 디스크 무료 설치

⇒ 111억 투입으로 연간 600만톤 491억원(1가구당 18,000원) 절수 효과 거양

※ 600만톤은 과천시민(7만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

7. 효율적 국토이용과 예산절감을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광역화 추진

-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예산의 중복투자예방, 운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보다 넓은 지역이 함께 사용하는 방안 마련(20개 시·군·구를 8개 권역으로 묶어 2,380톤 규모의 광역 소각장 건설을 추진) - 광역화로 건설시 국비(30→50%, 도비(21→25%) 지원 확대

▷ 구리권 200톤(구리,남양주) ▷ 양주권 200톤(동두천,양주,연천,포천)
▷ 광명권 300톤(광명,구로) ▷ 파주권 200톤(파주,김포)
▷ 수원권 600톤(수원,오산) ▷ 성남권 600톤(성남,하남,광주)
▷ 과천권 80톤(과천,의왕) ▷ 동부권 200톤(여주, 양평)
※ 운영중 2권역(광명,과천), 공사중 2권역, 계획중 4권역

⇒ 운영중이거나 공사중인 4개권역 소각시설 건설비 및 연간운영비 3,000억원 절감

8.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간 환경기초시설 「빅딜」성사

- 광명시 하수는 서울 가양하수처리장에, 서울 구로지역 쓰레기는 광명시 소각시설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 추진하는 과정에서
- 소각장 주변 주민의 반발 등의 어려움으로 무산될 위기까지 갔었으나
- 도지사가 직접 나서 주민 수해사업 재조정 등을 적극 추진한 결과, '99. 11월 하수처리시설 광역화에 합의하였고, 소각장시설 협약체결도 완료(2000. 4월)

⇒ 건설비 2,105억원(광명 1,655, 구로구 450) 절약과 시설운영비를 대폭 절감 하였고, 혐오시설 광역화에 여타 시·도의 모범적인 모델이 되고 있음

9. 부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외자유치

-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경우 시설설치비,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운영비가 과다 소요되며, 특히 다이옥신 등 환경오염물질 발생으로 시설입지에 어려움이 있고 직매립이 금지(2005년부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리규모 2,000톤/일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스템을 외자(5,000만불)로 유치

※ 미국 GBT사 및 CH2M HILL사의 자본과 기술 도입
(2000.10월 설치 계약)

⇒ 소각장 건설비 3,000억원과 향후 25년간 운영비 1조 300억원 절감

10.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자원화

- 수도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자원화는 방안에 대해 서울, 인천, 경기도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도간 이견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 '99. 2월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추진기획단 설치, 토지이용권과 가스 사용권에 대한 협상권 등 경기도가 제시한 추진방안이 관철되어 2000년도에 사업자 선정과 사업설계를 마치고 2001년도에 사업 착공
- ⇒ 팔당수력발전소(7.9만kw)의 6배에 가까운 46만kw 전력생산 가능

11. 공단내 환경 단속권 지방이양(위임) 추진

- 환경 단속권이 없어 밀착감시를 못하고 있는 공단지역의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권의 지방이양(위임)을 위해 그 동안 수차에 걸쳐 건의

- 그 결과 지방이양위원회에서는 환경부에서 구체적인 지방위임방안을 마련하여 위임을 추진하라는 결정으로 곧 해결될 것으로 기대
⇒ 지방위임이 되면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신속히 부응하고, 철저한 오염관리가 가능

12. 「천연가스사용 시내버스」 보급

- 천연가스 시내버스는 기존의 경유버스보다 70% 이상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매연은 전혀 배출되지 않으며, 오존영향 물질도 70% 이상 저감시킬 수 있어 오존 발생의 근원적인 해결 방안임



천연가스 시내버스 운행

- 2002년 월드컵을 친환경적으로 개최하고, 대기오염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천연가스 시내버스를 수원시 등 6개시에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교체·보급

※ 2000년도에는 수원시 등 6개시에 143대 보급(1대당 22,500천원 보조)

- ⇒ 버스를 승용차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월드컵 개최도시로서의 깨끗한 환경 이미지를 전 세계에 전달

13. 국가기준보다 높아 훨씬 깨끗한 지역대기환경기준 설정

- 경기도는 수도권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대기오염 수위가 높음
- 도에서는 2000년도에 국가기준 보다 나은 깨끗한 대기질 확보를 위해 지역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대기오염자동측정망(38개소)과 오존경보제(19개소) 확충

구분	국가기준	경기도	
		2002년	2007년
이산화질소(ppm)	0.050	0.048	0.045
아황산가스(ppm)	0.030	0.020	0.018
미세먼지 ($\mu\text{g}/\text{m}^3$)	80	75	70

14. 지역별로 뚜렷한 주제와 개성을 지닌 테마형 문화산업육성

-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경기도의 2차 산업 공백을 무공해의 고부가가치 산업인 문화산업으로 대체 육성하기 위해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문화산업 육성 실행 계획을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수립
 - 이에 대한 1차적인 후속조치로 부천시에 2002년까지 103억원을 투자하여 수도권 디지털문화 산업에 대한 기술·정보·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경기 디지털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중
- ⇒ 부천에 디지털아트하이브⁶⁾ 건립과 함께 수원·파주에 게임산업단지, 성남에 디자인산업 집적지, 광명에 음악밸리 조성 등을 추진

6) 디지털 아트 하이브(Digital Art Hive) :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디지털 기술과 접목시키기 위한 문화산업의 인프라 구축

15. 2001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

- 전국 도예산업의 72%가 모여 있어 한국 도자기의 총 본산인 이천·여주·광주 지역을 대상으로 2001년 세계 도자기 EXPO를 준비
- 특히 이 지역은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크리스탈 경매장에서 75만 달러에 팔린 철화용문호 등 세계에서 알아주는 명문 도자기를 만들던 곳
- 그 동안 준비한 결과를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는 의미에서 2000. 10. 10일 부터 13일간 프레 엑스포 행사를 가진 결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음

- ▷ 개최기간 : 2001. 8. 10 ~ 10. 28
- ▷ 개최장소 : 이천·여주·광주 일원
(32만평 부지에 1,500억원 정도 투자)
- ▷ 주 최 : 세계도자기엑스포조직위원회
- ▷ 후 원 : 대한민국 정부, 경기도, IAC⁷⁾(국제도자기협회),
NCECA(미국도자기 교육평의회), ACerS(미국세라믹협회)
- ▷ 주요행사내용 : 세계도자명품·걸작전시, 공연·행사, 국제회의·학술회의 등
- ▷ 주변 연계관광 : 목야박물관, 도예촌, 이천온천, 남한산성, 한국민속촌, 수원화성 등

⇒ 80개국 500여만 명 참가와 1조원 가까운 생산유발 효과 기대

7) IAC : 국제도자기협회(International Academy of Ceramics)

NCECA : 미국도자교육협회(National Council on Education for Ceramic Arts)

16. 「남한산성」과 「화성」 성역화 사업 추진



남한산성 성역화

- 오랜 세월 동안 노후화되고 파손된 채로 방치되고 있던 남한산성과 세계 문화유산인 화성을 복원하여 성역화하기 위한 사업이 국가지원을 받아 추진중
- 남한산성은 성역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2000년~2008년까지 총 1,450억원(국비580)을 집중

투입하는 등 대대적인 복원정비사업을 추진

- 화성은 국비 15억원을 지원 받아 성곽정비 및 행궁 복원 추진 중
- ⇒ **역사 체험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국가 관광 자원화에 기여**

17. 양주 「회암사⁸⁾지」 조사·정비사업 추진

- 조선조 최대의 왕실사찰로서 이성계의 궁궐이었던 회암사지
- 대통령님 방문시 건의하여 발굴조사비로 1억원의 지원 약속을 받았으며 종합적인 유적정비 복원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중

▷ 유적발굴, 중요 건물지 정비복원, 전시관 건립, 현 레미콘공장 이전 등

⇒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여 문화관광벨트 조성**

8) 회암사(檜岩寺) : 사적 제128호, 단일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문화재가 발굴됨

18. 스페인과의 문화·관광교류사업 추진

- 도지사를 단장으로 2000. 11. 22일부터 4일간 스페인 까탈루냐주를 방문하여 문화·관광·체육 부문의 투자유치 및 협력·교류 등을 합의하였고

- ▷ 경기도 관광숙박단지 조성 10억달러, 종합스포츠몰 조성 6천만달러, 아쿠아리움(수족관)개발사업 7천만달러 외자유치
- ▷ 세계도자기엑스포에 스페인관 설립 및 공연예술단 참가, 노래하는 분수대, 안토니가우디 대학원 설립, 경기도상징조형물 설치 등

- 2000. 7월 스페인 성악가를 경기도에 초청하여 공연한 바 있고, 2000. 11월 에는 경기도 도립예술단이 스페인 현지에서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연

19. ANTONI GAUDI 특별전시회 개최

- ANTONI GAUDI 특별 전시회를 2000. 10. 13일부터 11. 3일까지 22일간 세종문화회관 특별 전시실에서 개최
- 현재 도내에 건립계획인 「가우디 대학원」에서 전시물 및 각종 자료를 관리할 계획이며, 이를 다시 복제하여 필요한 지자체나 기관 등에 대여



안토니가우디 전시회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사업 중 최고의 경영수익을 기록

20. 경기도 역사 문화체험 가상현실 시스템 구축

- 경기도의 우수한 역사와 문화를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국내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기 역사 문화체험 가상현실시스템」을 구축중, 2001. 6월부터 체험 가능
- 수원화성, 남한산성, 경기도 박물관을 대상으로 컴퓨터 사이버 공간에서 입체적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문자, 사진, 그래픽 등을 이용, 3차원 가상현실 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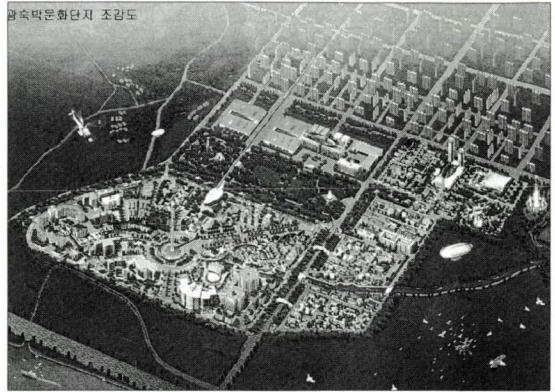
- ▷ 화성의 성곽, 장안문, 팔달문, 화서문, 서장대, 화홍문, 방화수류정, 동북노대, 동북포루, 봉돈, 서북공심돈, 정조대왕 유적, 화성능행차 등
- ▷ 남한산성의 남문, 동문, 서문, 북문, 수어장대, 청량당, 숭열전, 현절사, 침괘정, 연무관, 망월사, 행궁, 남한산성 관련 역사적 사건 및 유물 등
- ▷ 경기도박물관의 고고미술실, 기증유물실, 서화실, 문헌자료실, 자연사실, 민속생활실, 야외전시장 등

⇒ 2001. 6월부터 체험이 가능하며, 향후 도내 문화관광 전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민에게 흥미롭고 쉬운 정보 제공

21. 고양시 장항지구에 외국인 관광숙박단지 유치

- 2010년 외래 관광객 1,000만 시대에 대비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모이는 수도권 지역에 부족한 관광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외국인 관광 숙박단지를 서울·인천과 치열한 경쟁 끝에 고양시 장항지구에 유치
- 관광숙박단지는 30만평 부지에 8,000개의 한식과 양식이 조화된 객실을 갖춘 중저가 종합 관광타운으로 개발

⇒ 경기도는 이제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자고, 먹고, 쇼핑하는 수도권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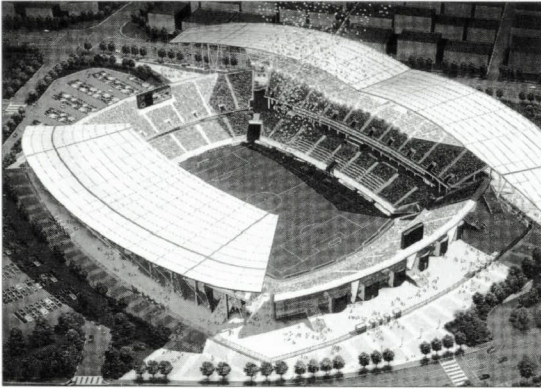
외국인 관광숙박단지

※ 건설과정에서 3만여개의 일자리와 3조8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완공 후에는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연간 3만5천여명 이상의 고용효과와 약 1조3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됨

22. 인터넷 강국을 실현하는 사이버 도서관 시스템 구축

- 도서관 건설에 막대한 재원과 시간이 소요되고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기존 건물 중심의 도서관을 대신하여 시간과 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도서는 물론 영상, 음향 등 양질의 지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 도민들이 편안하게 컴퓨터앞에 앉아 필요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사이버 공간에서 도내 52개 공공도서관의 도서 목록 및 대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3개년 사업으로 추진
- ⇒ 2000년도에 시스템구축 → 2001년도까지 논문열람, 인쇄서비스 제공 → 2002년까지 영상, 음향, 3차원영상 등 제공

23.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완벽한 준비



2002월드컵 축구수원경기장

- 민간사업자의 경기장 건설 포기로 인한 재원부족 현상과 조달방안의 불확실성 등 경기장 건설은 물론 월드컵 개최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국 최초로 「2002년월드컵수원경기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하고, 「범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

하여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였으며

- 수원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전체 투자액의 60%에 달하는 2,000억원을 도에서 직접 지원하여 월드컵 경기장 건설 및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한편 개최준비 및 대회 후 경기장의 사후관리를 위한 별도의 「독립법인」을 설립(2000. 2. 29)

⇒ 2002년 월드컵 수원경기를 9백만 도민의 의지가 결집된 「범도민 축제」로 착실히 준비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물론 대내외적인 신뢰 확보

24. 전국체전 사상 최초로 종합우승 5연패 달성

- 2000. 10. 12일부터 7일간 부산광역시에 개최된 제81회 전국체전에서 경기도가 전국체전 사상 최초로 종합우승 5연패 달성



전국체전 종합우승 5연패

- ⇒ 900만 경기도민의 단합된 힘으로 이룬 쾌거이며, 경기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한층 높임

25. 시드니 올림픽 8개 금메달중 4개를 경기도 선수가 획득

- 엘리트 체육과 도민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온 우리도의 노력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우리 나라가 획득한 금메달 8개중 4개를 경기도 출전 선수가 획득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음

- ⇒ 우리 나라가 시드니 올림픽에서 12위를 하는데 경기도 선수가 중추적 역할 수행

제3절 지역균형 및 협력기반 구축

남북·한중 협력기반 마련

1. 3년간 대책 없이 표류하던 접경지역지원법 경기도가 나서서 해결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나 관련부처와 민간단체의 반대로 '96년이후 3년간 표류하고 있던 접경지역지원법(안)을 경기도가 주도하고 인천, 강원과 협력하여
 - 합리적인 대체법안 마련과 국회의원, 중앙부처, 환경단체 등을 135회 이상 찾아다니며 충분한 이해설득과 끈질긴 노력으로 법안 제정에 성공
- ⇒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등 낙후된 북부지역발전과 남북통일의 기반을 조성하여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음

2. 북부 전담부지사가 상주하는 경기도 제2청사 개청



제2청사 개청

- '99. 4월 대통령님의 경기도 방문시 낙후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제2청사 설치를 건의한 결과 구조조정의 여파로 모든 행정조직이 인력과 시설을 줄이는 상황에서도 전담부지사가 상주하는 북부지청 설치를 관련부처에 지시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순조롭게 추진되다가 법제처와 이견으로 대통령님 약속 사항 이행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 관련부처를 방문, 적극적인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 냄으로써 관계법령을 통과시키고
 - 2000. 2. 25일 대통령님 내외분을 모시고 개청 행사를 성대히 개최
- ⇒ 북부주민이 5시간 이상 걸려 수원까지 오는 민원불편 완전 해소와 경기북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 수립과 현안해결 추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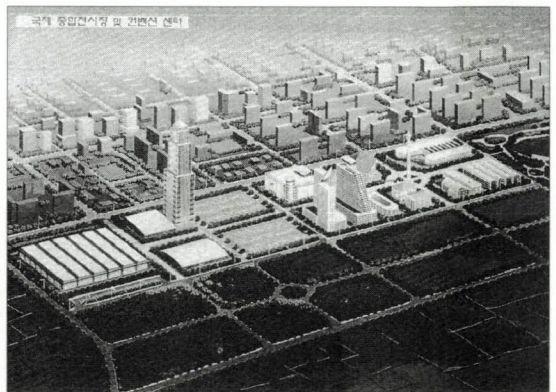
3. 북부지역 개발과 SOC 확충을 제4차 국토계획에 반영

- '99. 4월 대통령님의 경기도 방문시 북부지역의 발전 필요성을 건의 드린 결과 제4차 국토계획에 남북연계 교통망 복원(국도 2개 노선, 철도 2개 노선), 국제관광단지개발 등이 대폭 반영되었고
- 6.15 남북 공동성명 발표 이후 경의선·국도 1호선 연결공사가 이미 진행중에 있고, 개성공단 건설도 추진될 예정임

4. 아시아 무역과 관광의 중심지가 될 국제전시장 유치와 건립

- 현대 무역과 국제교류의 핵심 시설인 국제전시장을 여러 시도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고양에 유치

고양국제전시장은 건립단계에서부터 8만개가 넘는 일자리와 4조원에 달하는 생산효과를 나타내게 됨



국제종합전시장 건립

- 2000. 2월 건립단 구성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시장 건립이 시작되면서 72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고, 현재 세계적 수준의 전시장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음
- ⇒ **고양을 비롯한 경기 북서부 지역은 아시아 무역과 관광의 중심지로 발돋움**

5. 수도권 고속도로 북부구간 공사 착수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남부구간은 완공(1999. 10월 준공) 되었으나 북부구간은 재원 조달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착공조차 불투명한 실정이었음
- 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건설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시급한 사업인 점을 감안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 결과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 ⇒ **2000년부터 토지보상 등 공사를 착수하여 2004년이면 개통될 예정**

6.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군공여지 반환 추진

- 낙후된 지역이 고루 발전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군 작전에 긴요하지 않거나 미사용 중인 미군 공여지가 반환될 수 있도록 시·군의회와 합동으로 공여지 반환을 촉구하고, 공여지 관련 조사특위를 구성 운영

▷ '8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영평사격장 등 6개지역 716만평을 반환
 ※ 영평사격장 106만평, 캠프닐블 2.7천평, 캠프 폴링워드 1,077평, 동안동 공여지 606만평, 캠프자이언트 게리오웬 1,191평, 전곡읍 공여지 39,445평

⇒ 향후 지자체 · 의회 · 지역주민, NGO 등과 공동으로 반환을 추진하고 이전비용의 국가부담 등을 국방부에 건의 예정

7.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제도개선 추진

○ '99년도에는 화장실, 농기계 창고조차 군부대 동의 없이 설치할 수 없었던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선 군부대를 하나하나 방문하고, 국방부와 국회에 계속 건의한 결과

⇒ 여의도 면적(257만평)의 6배에 달하는 1,585만평 규제 해결

○ 2000년도에는 다시 경기도와 같은 규제를 받고 있는 강원도와 공동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 추진

⇒ 용역결과를 토대로 군사관련 각종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강원도, 국토연구원과 공조하여 중앙 관계기관에 정책건의 등 추진

8. 평택항 정기항로 개설과 수출물류의 핵심수단인 컨테이너선 취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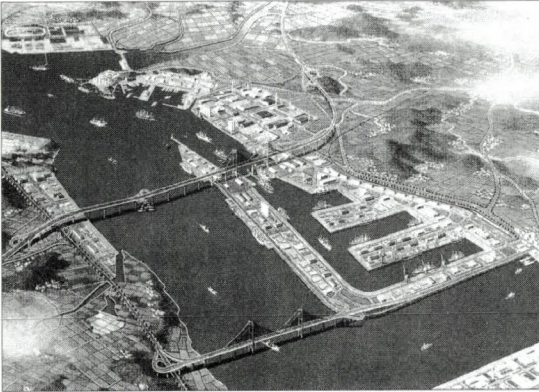
○ 중국의 WTO가입 등 중국시장의 개방, 확대에 따라 서해안이 동북아경제권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상황에 맞추어 평택항을 대중국 교역의 전초 기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 주요 항과의 항로개설 추진

○ 도시사를 단장으로한 경기도 대표단이 2000. 4월 중국 광둥·요녕성과 신흥무역 지대로 꼽히고 있는 산둥성, 대련시를 각각 방문하여 컨테이너선, 카훼리선 정기항로 개설을 위한 한·중간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고, 11월 컨테이너선 취항

▷ 북중국항 컨테이너 물량을 부산항이 아닌 평택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연간 1,375억원('98) 이상의 물류비 절감

⇒ 서해안 시대에 대비하여 평택항을 중국의 상하이보다 앞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동북아의 종합물류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나가겠음

9. 평택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정요건 완화 추진



평택항

- 평택항은 588만평에 이르는 넓은 배후지를 가지고 있고 계획적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구촌 최대의 화물창출국인 중국의 대련항, 천진항, 연운항 등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입지하고 있음에도

▷ 전국 수·출입 물량의 46.9%를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발생화물을 부산항에서 처리함으로써 매년 1조원 이상('98 : 1조 1,365억)의 물류비가 손실되고 있는 상황

- 정부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지정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으나 차관회의 상정을 두 차례나 연기시켜가며 관세자유 지역 지정요건 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 도 의견이 반영되어 선박접안능력의 기준을 하향 (5만톤→3만톤) 조정
- ⇒ 평택항이 관세 자유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내외 우수한 업체들과 자본이 속속 모여들어 아시아의 무역 중심지, 물류 거점으로 성장하게 됨

10. 평택항 조기 개발을 위한 여건 조성 및 기반 구축

- 평택세관 설치를 승인하는 등 평택항 지원기관(C·I·Q)설치 추진
- 국제여객터미널 건립추진(동부두 2번 선석내, 2000. 12~2001. 7월)
- 평택항 개발업무 전담조직(경제항만과) 구성 운영

수도권 교통·물류체계 개선

11.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인천과의 협력 강화

- 수도권의 버스, 전철 등 대중 교통수단은 서울 따로, 인천 따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 야기
- 수도권 교통문제는 경기도 혼자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서울, 인천이 참여하는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 교통현안 해결 전격 합의

- ▷ 과천↔우면산도로 2002 월드컵 이전 완공
- ▷ 계수대로(서울~시흥시) 등 광역도로 7개 노선 동시 개통
- ▷ 수도권 택시사업구역 통합(광명↔구로·금천 시범운영)
- ▷ 광역직행시내버스 운영(분당↔광화문, 일산↔서울시청)

12. 대도시광역교통관련법 개정을 통한 도로건설 재원확보

- 토지공사 등 개발업자에게 도로 건설비를 부담케 하는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제도를 도입
- 부담금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배분비율을 결정하면서 경기도가 제시한 40(정부) 60(지방)으로 조정되어 2005년까지 1조 600억원의 재원 추가 확보

⇒ 1조 600억원이면 의왕~과천 고속도로 8개 이상을 더 건설할 수 있는 금액

13. 유료도로법 개정을 통해 수월한 도로건설 재원확보

- 유료도로의 관리권을 이관 받은 자에 대해서도 수익률을 인정하여 민간사업자에게도 매각이 가능해졌고
- 그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도로건설에 곧바로 재투자할 수 있게 되어 민(외)자 유치를 통한 도로 건설이 수월해져 지방재정 부담은 절감시키면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상습정체구간은 주민들과 상의하여 민자유치로 곧 바로 새로운 도로건설 가능

14. 천호대교~토평간 등 18개 광역도로망 확충

- 시·도 경계부분의 병목구간을 해소, 수도권외 교통난 해소
- 국고 50%, 지방비 50%의 매칭펀드방식으로 추진하여 천호대교~토평 등 18개사업에 국고 1조 6,131억원 투입(2001년도 현재 6개사업 추진중)

▷ 계수대로	▷ 하남~하일	▷ 상일IC~신장
▷ 천호대교~토평	▷ 의정부우회도로	▷ 신내~퇴계원

15. 광역전철 사업 지방비 부담 하향 조정

- 지방비 부담이 과중(44%)하여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던 수도권광역전철사업 (5개 노선 146Km, 2008년까지 4조 8,554억원 투자)

이 지방비 부담의 하향조정을 대통령님께 건의하고 건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 양주군의 경우 郡 전체예산('99년 1,297억원) 보다 많은 1,414억원 부담

- 지방비 부담율을 2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재정부의 반대를 설득하는 등 관련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관련법령이 2000. 4. 13일 개정됨

⇒ 우리도 부담금이 7,260억원 감소하였고, 경원·경의·중앙·분당·수인선 광역 전철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앞 당겨졌음

※ 7,260억원은 북부지역 시·군마다 1만 명 규모의 체육관을 하나씩 지을 수 있는 금액이며, 주민 1인당 35만원의 혜택을 드린 셈

16. 환경 친화적인 도시교통 수단으로 경전철 건설

- 환경 친화적이고 무인운전이 가능한 첨단 경전철사업을 의정부 등 3개 노선 39.4km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 특히 의정부지역은 교통지옥이라 할만큼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의정부경전철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정부의 무관심으로 계속 방치되어 왔음
- 그러나 북부지역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한시도 늦출 수 없을 점을 감안 도에서 직접 나서 외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99. 12월 일본 산케이(주)와 투자 이행 각서가 체결(2억 5백만불)



경전철

※ 정부에서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함으로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음

※ 2000. 3월 2000년 민간투자 중점 관리사업 선정(기획예산처)

○ 하남경전철은 사업자를 선정하여 협상중에 있고, 용인경전철은 계획안을 검토중

⇒ 의정부경전철은 2005년까지, 하남·용인은 2006년까지 완공 예정

17. 서울 도심과 직접 연결되는 광역직행버스 확대 운행



광역직행 버스

○ '98. 11월부터 분당~광화문간 광역직행버스가 시범으로 운행되기 시작한 이후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고 있는 서울 주변의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그 동안 광역직행버스 운행을 확대 추진해 왔음

▷ 성남 분당~서울 광화문간 직행버스 : '98. 11. 16부터 운행(18대)

▷ 고양 일산~서울 광화문간 직행버스 : '99. 9. 10부터 운행(29대)

▷ 성남 분당~서울 삼성역간 직행버스 : '99. 9. 10부터 운행(18대)

- 2000년도에는 산본~평촌~광화문을 연결하여 운행하는 광역직행버스노선을 신설 추진하면서 2월부터 5월까지 교통수요를 조사하여 서울시와 협의하였으나 도심 교통난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음
- ⇒ **건교부의 신도시와 서울도심을 잇는 광역직행버스 운행계획에 따라 재추진**

18. 광명~서울(구로·금천)간 택시사업구역 통합

- 광명~서울시(구로·금천구)는 동일 생활권이면서도 택시사업구역이 따로 되어 있어 승차거부나 할증요금 등의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야기해 왔음
- '98. 8월 경기도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서울시 측에 제시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99. 7. 1일부터 시범통합 운영해 왔음
- ⇒ **시범운영결과 지역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운영기간을 2001년도까지 연기하는 한편 서울시 구로·금천구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확대 통합 추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9. 다핵연합도시 형성을 위한 광역도시계획(2020목표) 수립

- 환경보전, 도시간 기능분담, 광역시설 설치 등 도시 광역화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플랜」마련
- ※ 2001.12월까지 건교부가 합동으로 경기·서울·인천연구원이 함께 계획 수립

20.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대규모취락 등의 우선 해제 추진

- '71년부터 30년간 주민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도시발전을 저해하던 개발제한 구역 개선을 위하여 전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도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 '99년도 8월에 경기도 의견이 대폭 반영된 정부방침이 확정되어 구역 조정 추진중

※ 집단취락지역 우선해제, 종전부터 대지였던 곳 해제, 생활환경개선 사업 시행 등

- 인구 1,000명 이상과 주택 300호 이상인 대규모 취락 및 경계선 관통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를 추진하여 대상취락 12개시·군 40개소를 선정

⇒ 우선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 제반 절차 이행 중으로 2001년 상반기 완료예정

21. 난 개발 방지를 위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 수도권 난개발의 원인은 중앙정부가 '94년도 준농림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택건설업자가 경관을 저해시키고 간선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을 건설한데서 기인함
-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추진

- ▷ 아파트 건설을 위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대상면적을 3만㎡ 이상에서 10만㎡이상으로 제한
- ▷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내 행위제한 기준 마련
- ▷ 준도시,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을 강화
- ▷ 국토이용계획을 입안시 준도시지역의 입안기준을 강화하여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모

⇒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로 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

22.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도지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98. 10월 대통령님께 수도권 난 개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을 할 경우 시·도지사와 실질적인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제도개선을 특별보고 드리고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공동 건의 등 활발한 법령 개정 활동을 하였음에도 건교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추진이 보류될 상황에 있었으나 경기도가 이견을 조정하여 도지사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 촉진법 시행령 개정
- ⇒ 중앙의 일방적인 택지개발을 도지사가 직접 나서 지역실정에 맞게 도시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

23. 러브호텔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주거밀집지역(학교 포함) 인근이라 하더라도 상업지역에서는 일

반숙박시설 (러브호텔 등)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 인근에 숙박시설 신축을 허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음

- 경기도에서는 총리실, 건교부, 교육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고양시가 함께 참석하는 합동회의 개최와 5개 신도시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지침, 조례, 법령 등에 대한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

▷ 상업지역 중 주거지역(학교 인근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숙박시설(러브호텔 등)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녹지 등 차단시설 설치를 명문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지정 근거 마련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

▷ 상업지역이라도 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 등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러브호텔 등)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24.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적극 해결

- '99. 10. 21일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지면서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없이는 최초로 의도되었던 계획적 시설로써 집행될 수 없고 규제도 어렵게 되었음
-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재산권자에게 해당기관에 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에 도시계획시설로서의 효력을 없애는 일몰제도를 도입하여 추진(도조례 2000. 10. 27 제정·공포)

- ▷ 10년이상 미집행시설중 지적법상 「대지」는 매수청구권 부여
- ▷ 20년이상 미집행시설은 이를 실효시키는 일몰제 도입

⇒ 2001. 12. 31일까지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존치 또는 해제 여부를 확정하고, 매수청구에 대비한 자원대책 마련중

25. 환경 친화적 건축물 건설을 위한 경관심의제도 도입

- 주택이나 건축물을 건설하면서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인근 주거단지와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건축을 허가하는 「공동주택 경관심의제」도입
 - 보다 엄격하고 환경 친화적인 기준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도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민간 환경단체 전문가 5명 추가 위촉(2000. 8. 30)
- ⇒ 우선 팔당대책1권역과 광릉 숲 주변지역을 경관심의대상지역으로 지정

농어촌의 균형발전

26. 농산물 직거래 추진평가 전국 1위 차지

- 경기도는 농가 소득을 높이고, 영농경비를 줄이는데 앞장서 왔으며,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해 2000년도에 만도 농가수익의 10%인 870억원의 소득증대

- ▷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3개소) ▷ 광역직거래장터(10개소)
- ▷ 농협 직거래 장터(134개소) ▷ 자매결연 직거래장터(343개소)

- 소비자들에게는 기존 가격의 11.7%인 1,018억원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혜택

⇒ 연간 8,700억원의 직거래 실적으로 전국 1위

27. 집중호우, 태풍, 구제역을 슬기롭게 극복

- 2000. 7월의 집중호우와 8월의 두 차례에 걸친 태풍의 영향으로 벼가 물에 잠기고 쓰러지는 등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 속에서도 405만석의 쌀을 생산해 5년 연속 풍년농사를 이룩함으로써 식량의 자급자족과 국가경제안정 기여
- 특히 구제역 긴급방역 조치로 확산을 방지하고, 도지사 위로금 및 소 구입 전달로 양축 농가 사기양양과 재기발판 마련

28. 경기 사이버 농장 개설 운영

- 농민과 소비자를 영상을 통해 직접 연결하는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업인에게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는 중간유통 마진 없이 우수한 농산물을 싸고 편리하게 공급하는 농산물 직거래 확산 계기 마련

▷ 1농가 1홈페이지 구축으로 총 100개 농가 780개 품목으로 구성

⇒ 2001년도에는 새로운 e-Business 모델을 통해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한 전자상거래 사이트 구축 예정

29. 도지사 농산물 품질 인증제(G-Mark) 도입

- 「경기도지사인증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및 홍보
- 용인 원삼 오리쌀, 가평 잣 등 30개 품목
- ⇒ 2001년도에는 G-Mark 제도를 확대하여 경기도 생산 농산물 상품가치 제고



경기도지사 품질 인증

30. 수출 전략 품목 위주의 수출시장 개척

- 배, 인삼김치 등 수출전략품목(TI)의 수출시장을 개척하여 수출 증대(9,150만\$)
- 국가별 수출전략 품목 집중 육성 및 적극적인 시장 개척으로 수출시장 확대

- | | |
|------------------------|-----------------|
| ▷ 미국(배, 호접란), | ▷ 대만(농산가공품) |
| ▷ 일본(김치, 인삼, 복숭아, 토마토) | ▷ 홍콩(인삼, 배, 김치) |

- 절화류 수출전 국내 검역(일본식물검역관 초청) 실시로 농가손실 최소화

⇒ '98~2000년도 3년간 총 2조 8,966만불(연평균 9,655만불) 수출

31. 전국 최초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덜어주고 공동이용을 통해 농기계 이용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9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
 - '99년도에 2개시·군 2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2000년도에는 6개시·군 15개소로 확대 실시
- ⇒ **트랙터 사용경비를 26%로 낮춤**
(콤바인 수확작업 및 트랙터 경운작업 수수료 평당 150원 → 110원)

32. 가축사육규모 전국1위, 축산업을 선진산업으로 육성

- 전국 최초로 “한우 고급육 품평회”를 개최하여 경기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우를 개방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 추진
- ⇒ **전국 한우 품평회에서 4개부문 입상으로 전국 최고의 성적을 거양하여 경기한우의 우수성을 입증**
- 구제역 청정화 이후 수출재개 대비를 위한 품질 고급화를 도모하고, 주요 악성전염병 근절 및 모돈 갱신사업 추진(2000~2002년까지 75천두)

33. 도시에 못지 않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

- 농어촌 지역의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및 노후·불량주택 개량으로 뒤떨어진 주거환경을 현대적 생활환경으로 개선 정비 추진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 '99년도 1,497동, 2000년도 600동▷ 농어촌 기반시설 정비사업 : '99년도 4개 마을, 2000년도 6개 마을 |
|---|

- 농어촌지역 주민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농어촌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업체에 대하여 버스 구입비와 운행결손금을 보상 지원(2000년도에 총 14억 4,189만원 지원)
- 병원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병상 확충을 위해 '95년도부터 농어촌 민간 병원 확충 용자사업 추진(2000년도까지 48개소 83억 8,000만원 용자)

34. 인공어초시설 전국 1위

- 연안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증강·보호를 위하여 '88년부터 2000년까지 91억원을 투자하여 수심 20~50m 연안해역에 콘크리트사각형 인공어초를 시설하여 2,188ha의 어초어장을 조성하고 사후관리 실시

⇒ 그 결과 인공어초시설 전국단위 중앙평가에서 1위 차지

35. 숲 가꾸기 추진 전국 우수

- 숲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공조림지와 우량 천연림 13,604ha에 총사업비 195억원을 투자하여 숲 가꾸기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

▷ 간벌,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풀베기 천연림 보육작업 등

- 연인원 51만 7,000명의 실업자를 숲 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하여 정부의 실업대책사업과 조립사업에 동시에 기여하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둠

⇒ 그 결과 숲 가꾸기 전국단위 중앙평가에서 우수 차지

제4절 주민복지와 서민생활 향상

실업대책과 서민생활 안정

1. 전국 최대의 실업대책예산을 투입하여 실업극복 총력

- 전국최대의 실업예산을 투입하여 공공근로사업, 한시적 생활보호와 경기부양 시책에 주력하여 최고 39만명에 달했던 실업자수를 절반이 훨씬 넘게 줄였음.

	'99. 1월	2000. 10월
· 실업률 : 10.2 % (전국 8.5%)		2.7 % (전국 3.4%)
· 실업자수 : 39만명 (전국 176)		12만명 (전국 76)

⇒ 정부의 실업대책 추진 평가에서 전국 1위 차지

2. 해외 일자리 마련을 위한 「해외취업박람회」 개최



경기919 취업광장 개최

- IMF 경제위기 발생이후 급격히 증가된 실업자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99년부터 경기도에서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음

- ▷ 제1회 박람회는 '99. 5. 18일부터 4일간 미국, 캐나다, 일본 등 9개국에서 53개 구인기업이 4,492명 채용을 위해 참여하였고, 15,000여명의 해외취업 희망자가 참관
- ▷ 제2회 박람회는 2000. 6. 2일부터 3일간 구인기업 74개, 정보제공기업 등 31개 기관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종합운동장에서 개최

⇒ 1·2회 박람회에서 2만여명이 참여하여 총 2,489명이 면접

3. 건설근로자와 저소득층을 동시에 보호하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추진

- 공공근로사업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순회기동단을 조직하여 생활 보호대상자 주택, 사회복지시설, 공중화장실, 학교시설물 등을 개·보수
-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주거환경을 무료로 고쳐 주어 도민들로부터 많은 갈채(총 14,159건의 시설 개·보수)

※ 당초 9,270개소 설정하였으나 도민 호응도가 높아 사업량 확대

⇒ 일자리 제공뿐 아니라 서민들에게 실제 생활에 필요한 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1석 2조 효과 거양(70여만명 혜택)

4. 기업체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

- 구인 기업체의 수요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촉진훈련 실시

▷ 운영실적 : 훈련기관 207개소, 사업비 4,953백만원, 위탁인원 5,083명



공공근로사업(공원조성)

- 주민숙원사업과 연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소하천 정비, 도시공원 조성 등)

▷ '98년부터 5,195억원을 투입하여 총 1,622만여명에게 일자리 제공

5. 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본격 시행

- 우리 나라 사회복지의 제도적 완성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4개월 동안의 체계적이고 철저한 조사과정을 거쳐 최종수급자가 결정되면서 2000. 10. 1일부터 본격 시행

-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계층의 기초생활보장 : 95천가구 207천명
-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 자립·자활지원
- ▷ 조건부 생계급여의 제공으로 근로활동 유도 (자활사업 참여 등)

- 본 제도 시행으로 20여만명의 도민들에게 2,5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생활을 보장받게 되었음
- ⇒ 모든 수급자에게는 기초생활을 최대한 보장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활 서비스 제공

6. 거동이 불편해도 편히 진료 받을 수 있는 도 이동진료반 운영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혼자 사는 노인 등의 의료서비스가 꼭 필요하나 경제적·신체적 여건상 쉽게 진료 받기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진료와 검진 서비스를 전담할 수 있는 무료이동진료반을 편성 운영('99. 11. 29)



무료이동진료

- ▷ 무료진료대상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양로원, 저소득층노인 등
- ▷ 운영실적 : 161회 17,334명('99년 2,186, 2000년 15,148)

- 또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진료를하고 있으며, 수해현장 긴급 출동시 지역 보건소와 연계하여 진료 및 예방접종 활동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음
- ⇒ 그 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편지와 신문, 인터넷, 책자 등을 통해 감사하다는 내용의 글을 받는 등 좋은 호평을 보이고 있음

7. 말라리아에 대한 체계적 대책으로 환자발생수 매년 감소 추세

- 말라리아는 '93년도에 최초 감염자가 발생한 이후 환자수가 휴전선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경기도에서는 2000년도에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말라리아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유행지역을 중심으로 민·관·군 합동 방역소독

을 실시하는 등 환자 조기발견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대응해 왔음

⇒ 그 결과 전국 환자수가 13%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10.2% 감소

8.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우리 나라는 전통적으로 음식 습관이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매년 많은 음식물이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국정 100대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 경기도에서는 그 동안 이를 실천하기 위해 좋은 식단 책임 담당자 지정 및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100일 작전 추진, 우수 실천업소 상수도료 50% 감면 등을 추진해 왔음

- ▷ 좋은 식단 책임 담당자 1,574명 지정 및 모범음식점 지정 확대 (2,742개소)
-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등 100일 작전 추진 357팀 66,025명 참가
- ▷ 우수 실천업소 상수도료 50% 감면 355개소 1,826만원 지원
- ▷ 용기제작 보급 455,000개소 1,235만여원
- ▷ 민간단체 음식문화개선 홍보지원 1,826만원

⇒ 그 결과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3연 패 달성

여성 역할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

9. 경기도 여성정책의 근간이 되는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 인권신장, 여성복지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하는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를 2000. 1. 10일 제정 (2000. 3. 6일 시행규칙 제정)
- 이는 기존의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경기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경기도여성상조례 등을 통합 보완하는 형태로 제정되었음

- ▷ 제1장(총칙) ▷ 제2장(여성정책) ▷ 제3장(여성발전위원회)
- ▷ 제4장(여성발전기금) ▷ 제5장(경기도여성상)
- ▷ 제6장(성차별신고센터) ▷ 제7장(보칙)

⇒ 체계적인 경기도 여성정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10. 여성발전기금 100억원 2년 앞 당겨 조성

- 당초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2002년까지 조성토록 되어 있었으나 기금조성 계획을 2년 앞 당겨 2000. 1. 21일자로 목표액 100억원 조성 완료
- 기금은 여성권익신장과



꽃꽂이 강좌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 여성단체의 건전한 도민운동, 여성관련시설 설치, 여성의 복지향상과 여성국제협력 증진 사업 등에 지원

⇒ 2000년도에는 여성단체 업무 전산화 등 37개사업에 185백만원 지원

11. 여성정책 추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2000. 11. 13일부터 10일간 실시한 「2000년도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종합평가」에서 경기도 부천시(최우수)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 수상

⇒ 부천시(최우수, 대통령), 시흥시(우수, 국무총리), 군포시(3위, 행정자치부장관)

12. 전국 최초로 여성정책국과 제2청사 여성국 설치

- 민선2기가 시작되어 1차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다른 조직은 구조조정으로 감축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여성정책의 체계적·집중적 추진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여성정책국을 전국 최초로 설치(98. 9. 14)
- 2000. 2월 제2청사 건립시에도 인력배분에 많은 애로를 겪으면서도 여성국을 신설하여 경기도 여성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기반 마련

▷ 본청 여성정책국 : 여성정책과, 가정복지과, 청소년과

▷ 2 청 여성국 : 여성복지과, 가정청소년과

13. 여성공무원 채용확대 및 보직 특별관리

- 여성공무원 확충을 위해 연도별 채용목표제 실시(2000년 20%, 2002년까지 30%)

- 2000년도에는 470명중 149명을 채용(32%)하여 초과달성
- 도 전입시험시 여성공무원을 20%이상 채용하도록 목표설정 운영
 - 2000년도에는 55명중 14명을 채용(26%)하여 초과달성
- 1과1여성 배치시스템 도입(67과중 31개과 배치, 2001년까지 전 실과 배치)
- 도 인사위원회 여성공무원 임명, 여성 읍·면·동장 임명 확대
- ⇒ **2000년말 현재 도소속 공무원 2,533명중 여성공무원 506명 (20%)**

14. 노인복지기금 100억원을 3년 앞 당겨 조성

- 경기도는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인복지기금 100억원을 3년 앞 당겨 조성(2000. 1월)을 하여 안정적인 노인복지 시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음
- 조성된 기금으로 2000년도에는 노인지도자 교육, 자원봉사센터 운영, 노인 단체 사회봉사활동비, 간이 게이트볼장 설치 등 21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노인연합회 운영, 노인지도자 교육, 할머니 교양강좌반 운영, 노인대학 운영, 연합회 게이트볼 대회 및 대회 참가비, 간이게이트볼장 설치, 노인 휘호대회, 노인여기활동 경연대회, 노인복지정책 세미나, 효행교재 발간, 효자효부 표창, 노인학대조사 및 예방프로그램 개발, 시설 및 장수노인 위문, 노인교실 운영, 노인생활 정보지, 노인단체 사회봉사활동비,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 노인시설 여가활동, 취업알선센터설치 및 운영,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15. 경로연금확대 등 저소득노인복지시책 확대

- 경로연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하고 지급액을 높이며 지급대상자 중 착오로 누락되었던 사람을 찾아내어 지원

▷ 지급대상 : ('99) 61 천명 → (2000) 63 천명 → (2001) 72 천명

▷ 지급액 : ('99) 월20천원 → (2000년 이후) 월30천원

- 노인의 집 관리비 보조(38개소) 및 증설(2002년까지 78개소로 확대)
- 양로·요양시설 개·보수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정비(15개소 26억원)

16.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5대 노인의료복지서비스 확대

-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확충(5개소), 노인전문요양시설 개원(1개소), 치매주간 보호시설 신설(2개소), 유급가정 도우미 138명 배치,페이징시스템 2,520세대 설치 등 가정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 확충

17. 노인성 치매환자를 위한 희소식, 독립노인전문병원 건립 운영

- 가정에서 보호하거나 부양할 수 없는 노인성치매, 조로성 치매, 기타 뇌졸 질환 후유증 등 노인성 질환자의 치료 및 간병 관리를 위해 '99. 10. 28일 용인 구성면에 독립노인전문병원을 건립·개원(개원후 252명 입원 치료)

▷ 위치 : 용인시 구성면 상하리 17(용인병원유지재단내)

▷ 규모 : 지하1층, 지상4층(58실 259병상)

▷ 진료과목 : 신경과, 신경외과, 일반내과, 정신과 등 4개과목

- 부족한 치매환자 전문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여주군 북내면에 51억원을 투자하여 90병상 규모로 도립노인전문병원 추가 건립을 추진중
- ⇒ 보건소 치매검진과 연계·운영하여 치매환자 조기발견 치료

18. 노인성 만성퇴행성질환 치료를 위한 보건소 한방진료 실시

- 노인성 만성퇴행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한 보건소 한방 진료가 '98. 6월부터 시작되었으나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한의사 충원의 어려움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확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못하였음
-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의사와의 업무대행계약, 계약제 채용 등을 통해 현재 39개 보건소에 32명의 한의사가 배치되어 진료를 실시
- ⇒ 한방진료가 시작된 이후 총 120만 명 이상 진료

19. 장애인복지기금 조성목표 100억원 조기 달성

- 장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 복지기금 100억원 조성 완료

※ '99년도 50억원, 2000년도 50억원 조성으로 100억원 조성 완료

- 조성된 기금으로 장애인 정보화사업, 중증의료 재활사업, 공동생활가정 설치 운영 지원사업, 장애인단체 주관 사업 등을 지원

20.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의시설설치 5개년계획 추진

- 장애인이 아무런 불편 없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주차장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 주요 편의시설 :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출입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세면대,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시설, 경보 및 피난시설, 관람석, 접수대
- ▷ 연도별 목표 : 2000년 67.4%, 2001년 76.3%, 2004년 83.4%

⇒ 2001. 7월부터 리프트가 장착된 25인승 버스와 10인승 소형승합차를 수원시를 시범지역으로 운행 예정

21. 장애인복지 전담 부서 설치

-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있는 부서도 없애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나 장애인이 불편하지 않은 경기도를 만들어 보겠다는 굳은 의지로 다른 부서의 기능을 일부 조정하여 2000. 12. 21일에 「장애인 복지과」를 신설

※ 장애인 복지과내에 장애인 복지담당과 장애인시설 담당을 두고 있음

22. 제20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6연패 달성

- 2000. 6. 13일부터 3일간 인천광역시 종합경기장 등에서 개최된 제20회 장애인 체육대회에 17개종목 278명의 선수단(선수 172, 임원·보호자 106)이 참가하여 금 49, 은 40, 동 37개를 획득하여 전국 1위의 종합우승 차지

⇒ 2001년도 제21회 대회
에서 다시 종합우승을 차
지하여 7연패 달성



장애인 체육대회

23. 장애인 법정고용비율 행정기관부터 솔선수범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정부기관부터 솔선수범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기도가 먼저 나서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온 결과 '99년도 말에 이미 법정 고용비율(2%)을 초과 달성(300명, 2.17%)하였고
⇒ 경기도 산하기관을 비롯한 민간분야까지 확대 추진중

24. 소년소녀가장과 결식아동에 대한 1:1결연사업 확대

- 경제적 빈곤 또는 가족기능결손 등으로 식사를 거르는 도내 1,837명의 아동에게 중·석식 지원

※ 취학생은 석식을, 미취학생은 중·석식을 인근식당 이용, 도시락 배달, 농협상품권 구입 전달 등의 방법으로 제공

- 종교단체 등과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 소년소녀가장 1,141명에게 결연 및 후원
- 결식아동들의 급식해결을 위해 기독교가 주축이 된 그린벤처운동(G.B.M)에 134개 교회가 참여하여 라면급식 제공
⇒ 라면구입비 등은 경기도청 직원들의 「봉급우수리모금액」등으로 지원

교육여건 개선과 청소년 육성

25. 경기교육대학 설립추진

- 도내 초등학생수의 급속한 증가로 매년 초등교원을 신규 채용하면서도 자체 교원양성기관이 없어 1,000명 이상을 타 시·도 출신 교원으로 임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교육대 설립은 도내 어린 초등학생들의 향토애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 이러한 문제를 대통령님 방문시 건의하여 교육부 2000년 예산에 인천교대 경기캠퍼스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비 반영까지 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삭감
 - 이후 지속적인 건의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여론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음
- ⇒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경기캠퍼스 설치를 협의해 왔던 인천교대에서 추진중에 있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26.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

-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과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건교부, 건설업자와 타 시·도의 반대가 있었으나 콩나물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설득한 결과

▷ 국무총리실 조정협의회 2회 ▷ 대통령 건의 2회
▷ 국회의원 서한문 발송 5회 ▷ 교육부 실무협의(개정안 작성 등) 21회

- 아파트 2,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건설시에도 학교용지가 확

보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성공

⇒ 학교설치비용 연 3,500억원 확보하여 매년 초등학교 45개 신설이 가능해 졌고, 학부모님들의 걱정거리였던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27.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학교급식 100% 완료

○ 2000년도에 교육관련경비 158억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을 2000년 말까지 100% 완료

⇒ 중학교도 2002년까지 완료, 도내 전학생이 학교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음



청소년 어울마당

28. 청소년육성기금 115억원 조성

- 청소년의 균형적인 육성을 도모하고, 어려운 청소년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청소년육성기금 115억원 조성
- 조성된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연간 약8억원)을 활용하여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등 청소년 육성사업 실시

29. 청소년 정책결정에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차세대위원회 발족

- 청소년행정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수요자인 청소년이 정책결정·집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차

세대위원회를 2000. 6. 17일 발족(도내 중·고·대학에 재학중인 60여 명의 학생으로 구성)

⇒ 분기 또는 수시로 모임을 갖고 도지사의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의견 개진과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지역봉사활동 전개

30. 청소년보호대책 추진 전국평가 우수기관 선정

-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전국 처음으로 차세대위원회 설치, 청소년 수련시설 ISO 인증사업 추진 등 다양한 청소년 시책 등을 추진한 결과

- ▷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에 청소년과 설치, 전 시·군에 상담실 설치
- ▷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차세대위원회」 발족 운영
- ▷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수련시설 ISO 인증사업 추진
- ▷ 도내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실명제」 운영 및 안전점검관리카드 비치 등

-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된 2000 전국 시·도 청소년 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표창」 수상

31. 2000년 청소년 상담사업 전국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문화관광부 주관 2000년 전국 시·도 청소년상담업무 평가에서 자신의 진로와 취업성적 등을 알아보는 「진로탐색엑스포 개최」등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재난 예방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건설

32.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점검결과 위반업소 공개

- '99년 발생한 화성씨랜드,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을 교훈 삼아 업주의 자율적 시설보완과 시민의 안전확보 및 안전에 대한 의식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점검 결과 위반업소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
- 제도 시행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업주의 자발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주민들은 이용하는 업소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신고하는 등 점진적으로 공개제도에 대한 관심 제고

※ 공개이전에는 시설보완하는데 30일 이상 소요되었으나 10~15일 소요, 타율적인 시정보다는 영업손실을 우려한 자율적 시정으로 전환

⇒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위생퇴폐업소, 불법쓰레기 방출업체, 환경오염 배출업소 등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인터넷 공개 확대 추진중

33. 주민들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구조·구급활동 실시

- 구급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혼자 사는 노인을 위해서 복지차원의 무선 페이지징 시스템의 설치운영, 응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구급대와 연결할 수 있는 윈스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도내 전 지역 2,520명 설치)



구조·구급 활동

- 소외계층의 노약자, 지체장애자를 위한 「구급차이용 예약제」 운영과 구급대원이 혼자 사는 노인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봉사행정 수행

34. 도심내 LPG 충전소의 도시외곽 이전 추진

- 대구 지하철 가스화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부천 LPG 충전소 화재사고와 같은 도심내 LPG 시설로 인한 대규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내 LPG 충전소를 도시외곽으로 이전 추진(2005년까지 3단계로 추진)
- 이를 위해 도심내 기존 LPG 충전소의 이전과 개발제한구역내 입지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중앙에 계속 건의한 결과
⇒ 2000. 7.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도심내 기존 충전소의 G·B내 이전이 제한적으로 허용됨

35. 과거 10년보다 2배나 많은 예산을 투입, 수해복구에 전력



수해복구

- 경기도는 매년 연속되던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뛰어 다니며 설득한 결과 과거 10년 투자금액보다 2배나 많은 1조 6천억원 투자
- 우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야간작업까지 해가며 공사현장을 하나 하나 방문하여 점검하는 등 수해 복구에 최선

36. 재해대책 추진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 행정자치부에서 2000. 5월과 11월 2차에 걸친 2000년 재해대책업무 종합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 수상

37. 교통사고 줄이기 획기적인 개선대책 마련

- 교통사고로 연간 1.5조원(전국 11.1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경기도의 최근 3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628명(전국 10,00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
 -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검·경찰과 협조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683개소에 대하여 2001년까지 407억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30% 줄이기 추진
- ⇒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로 연간 4,500억원의 사회적 손실비용 감소 효과**

제5절 행정시스템 혁신

열린도정과 고객지향형 행정 실천

1. 국제수준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인증하는 ISO⁹⁾ 인증 획득

- 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정기적인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여 공개하고, 행정 서비스 기준을 설정하여 국제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9. 12월 도·본청이 먼저 세계 최고 권위의 행정서비스 국제규격인 ISO 9001 인증 획득

※ 인증기관 : 영국 BIS(FS53135 :1999. 12. 16)

- 도본청 인증획득에 이어 전국 최초로 소방부문 ISO 인증(2000. 10. 30)과 제2청사 ISO 인증(2000. 12. 4) 획득

⇒ 도본청·제2청·소방부문 인증 획득으로 도정 전반에 품질행정체계 구축

2.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인 경인TV방송국 설립

- 날로 증가하는 경기도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TV방송국 설립은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경기도의 독자적인 TV방송국 설립을 추진하여 왔으나
-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경기도의 지리적 특성과 기존 방송사와의 중복투자, 방송광고 시장규모의 적정성 등의 반대의견으로 담보 상태에 있던 중
- '99년 이후 인천방송의 방송권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

9) ISO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 ISO 9001 : 제품의 디자인, 개발, 생산, 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장 광범위한 적용범위를 가진 규격인증 획득

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적극 추진한 결과 경인TV방송국 개설허가를 얻어냄

⇒ 2000. 10월부터 경기도민도 타 시·도와 같이 경기도 생활권의 각종 정보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게 됨으로써 지역여론 활성화와 지방 자치 발전에 기여

3. 문화행사를 곁들인 변화된 모습의 도정시책설명회 개최

○ 도정시책설명회를 독립 예술단을 활용한 문화행사와 영상물을 곁들여 보다 쉽고 재미있게 도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민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된 방식의 시책설명회로 참석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과 감재를 받았음



도정시책설명회

○ 현지 시·군에서 도지사가 지역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도민이 직접 현안에 대해 문의와 건의를 할 수 있고 곧바로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어 「도민과 함께하는 도정」으로 자리 매김

⇒ 242건의 건의사항 수렴(165건 반영, 중앙건의 39건, 장기추진 38건)

4. 지방세 민원사례 및 판례 「경기넷」정보제공

○ 질의회신 사례를 세목별·과세유형별 “검색기능”으로 검색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속한 세무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세무상담 응답집 34,299건(1일 101회 이용), 질의회신 응답집 28,788건(1일 85회 이용)

5. 보존기록물 전산화로 열린 도정 구현

- 광화일문서관리시스템을 도입, 방대한 양의 보존문서를 전산화함으로써 보존기록물을 신속히 검색·활용할 수 있는 기반 구축
 - 조례, 훈령, 국토이용 계획도, 인사기록 대장 및 20년 이상 문서 등 총 9,700여권을 본청 전 실·과 PC와 Network로 연결
- ⇒ 2001년도에는 보유 중요문서 59,260권중 20,000여권 D/B화 목표

6. 인터넷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

-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경기넷에 「도지사에게 바란다」란을 운영하여 도지사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정에 반영
- ※ 건의사항 609건 접수(605건 처리완료, 4건처리중)

7. 도정의 주요 정책결정·집행·평가과정에 도민참여 확대

- 도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도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등 주요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도정감사·평가활동 전개

- ▷ 도정업무계획 수립과정에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토론회 개최
- ▷ 도정평가 과정에 경실연 등 시민단체 참여
- ▷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 ▷ 권역별 「민원모니터와 도지사 간담회」 개최 (35건 건의 접수 처리)
- ▷ 민원모니터(500명)를 통한 도민불편사항 접수 처리
- ▷ 도민들의 제보를 받아 감사를 실시하는 공개감사제도 운영

자지역량 강화

8. 국회·중앙·인근 자치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협력으로 현안 해결

- 당면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응논리 개발과 도의회, 국회, 중앙부처, 인근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지역현안 해결의 지지기반 확보
 - 도의원을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 등 초청 간담회 개최, 수도권 행정협의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공동협력체제 구축
- ⇒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지역현안 67건을 2년 반만에 일거에 해결

<1998. 10. 16 대통령 방문시 건의사항 해결>

- ▷ 물이용부담금제도 도입 등을 위한 한강수계법 제정
- ▷ 광역도시계획권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법 개정
-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시·도지사 참여를 위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
- ▷ 수도권내 외국인투자 첨단업종의 신·증설 허용
- ▷ 수도권내 첨단 국내 대기업의 증설 허용
- ▷ 수도권내 공장설립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면제·감면
- ▷ 수도권내 대학, 연구소의 실험실공장 및 창업보육센터 공장등록
- ▷ 수도권내 지방세 중과세 인하
- ▷ 수도권국제종합전시장 고양 유치

- ▷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
- ▷ 도세 징수교부금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과 지방채정법 개정
- ▷ 준용하천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 마련

<1999. 4. 24 대통령 방문시 건의사항 해결>

- ▷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 ▷ 2001 세계 도자기 EXPO 국고 지원
- ▷ 남한산성 및 행궁복원 사업 국고 지원
- ▷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
- ▷ 제2청사에 북부전담부지사를 두는 지방자치법 개정
- ▷ 북부지역에 관광산업 유치와 SOC 사업을 제4차국토계획에 반영

<2000. 12. 1 대통령 방문시 건의사항 해결>

- ▷ 고양 장항지구 외국인관광숙박단지 유치
- ▷ 회암사지 발굴 및 복원사업 국고 지원
- ▷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 마련
- ▷ SOC 부문 민자유치 확대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

<1999. 4. 2 행정자치부장관 방문시 건의사항 해결>

- ▷ 2단계 조직개편시 소방공무원 별도 운영 등 경기도 요구사항 관철
- ▷ 용인 수지읍에 대한 인력 보강(11명)
- ▷ 시흥시 정왕동과 수원 영통동 인력 보강
- ▷ 수해사업 등 주요 국가사업의 예산 조기집행 절차 개선

<2000. 1. 27 행정자치부장관 방문시 건의사항 해결>

- ▷ 화성군 도농복합시 승격
- ▷ 광주군 도농복합시 승격
- ▷ 고양국제전시장 건립단과 도자기엑스포준비단 인력 확보

▷ 도심내LPG충전소 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
조치법 제정

▷ 민통선정착마을 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확보

〈국회의원·장관 초청간담회, 국회·중앙부처 직접방문 등을 통한 현안해결〉

▷ 광역전철사업 지방비부담 하향 조정을 위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

▷ BOT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

▷ 골프장 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률 개정

▷ 난 개발 방지를 위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 러브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법시행령 등 개정

▷ 광릉 숲 보전을 위한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정

▷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도민들의 정보 공유를 위해 경인방송국 개국

▷ 평택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지정요건 완화

▷ 어연·한산 지방산업단지내 외국인기업 전용임대사업 국가 지원

▷ 공공근로사업비 추가 배정('99년도 1,233억원 추가 배정)

▷ 1단계 조직개편시 경기도에 대한 별도기준 마련 관철

▷ 평택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택항운노조 설립

▷ 농업보호구역안 농지에 여관·음식점 설치행위 제한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

▷ 고속전철 남부역사(광명) 건립

▷ 2개년에 걸친 수해복구 예산 대폭 확보('98~2000년에 1조6,000억원)

▷ 중소기업 육성자금 국비 지원 확대(42.5%→50% 매칭펀드 방식)

▷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경기도에 유치(광역센터, 안산센터, 시흥센터)

▷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

▷ 유희숙박시설을「경기투어텔」 지정하기 위한 건교부 방침 확정

▷ 구리도시계획시설(학교부지) 확보

▷ 의정부 경량전철 국고 지원

- ▷ 군사시설보호구역 조정 및 제도개선
- ▷ 송파 경륜장 경기도내 이전 유치
- ▷ 하수처리시설 인가권 지방 이양
- ▷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추진을 위한 국비지원 기준 확대(30%→50%)
- ▷ 경기 FM 방송국 경기북부지역 기청권 확보를 위한 출력 증강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한 서울·인천과의 현안해결>

- ▷ 수도권 택시사업구역 통합(광명↔서울 구로·금천간)
- ▷ 광역직행버스 운행(광화문↔분당, 광화문↔일산, 분당↔수서)
- ▷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 개설
- ▷ 신림~안양간 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조기 개통
- ▷ 폐기물처리시설 서울시와 빅딜 추진(광명 소각시설, 가양 하수처리장)
- ▷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자원화(환경부에 추진기획단 설치)
- ▷ 하남 경량전철 연계노선 조정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현안해결>

- ▷ 국세인 교통세의 3.2%를 지방주행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개정
- ▷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13.27% → 15%)
- ▷ 지방세 부과 국세(교육세)의 지방세 전환을 위한 조세체계간소화 특별법 제정

9. 구조조정의 마무리 및 가변차선식의 탄력적 조직 운용

-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 평균보다 2배이상 많은 열악한 상황임에도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적극 동참

※ 공무원 1인당 주민수 : 경기 1,633명(전국 시·도평균 735명)

서울 638, 부산 698, 충북 623, 강원 538

⇒ 1·2단계 구조조정 실시 : 6,942명 감축, 18%

- 행정수요에 따라 조직을 가변차선제식으로 신축성 있게 운영하고, 전자결재와 목표관리제 도입 등 내부혁신을 통해 행정서비스 질 제고

- ▷ 수도권 광역행정 수요에 탄력적 대응 : 55명 재배치
- ▷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및 대민행정 수행 기능 강화 (6실·국, 19실·과, 292명)

10. 화성·광주지역 주민 숙원사업인 도농복합시 승격

- 화성·광주는 도농복합시의 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승격을 허용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었으나
 - '99. 11월 도지사가 직접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복합시로의 승격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2000. 2월 시로 승격시키는 법률이 제정되어 2001. 3. 21일에 광주시, 화성시로 승격됨
- ⇒ **화성·광주 30만 주민의 숙원해결일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발전도대 마련**

11. 지방교부세율을 13.27%에서 15%로 상향 조정

- 16개 시·도의 공동건의와 행정자치부의 지원으로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을 추진해 온 결과 '99. 12. 28일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도부터 '99년 대비 35.5%인 1,093억원을 추가로 교부 받게 되었음
- ⇒ **1,093억원은 오산시나 동두천시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임**

12. 국세인 교통세를 지방주행세로 전환

- '98년 한·미자동차 협상결과 자동차세 감면으로 지역발전에 쓰여지는 지방재원의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안으로
 - 국세로 징수되던 교통세의 3.2%를 재원으로 하는 주행세 신설을 추진하여 정부의 수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
 - 이후 새차와 현차 차등과세에 따른 감소분 재원보전으로 주행세율을 3.2%에서 11.5%로 인상 조정함으로써 주민 부담 없이 총 874억원 세수가 증가
- ⇒ 874억원은 행주대교 1개소를 더 건설하고도 200억 정도가 남는 금액임

13. 국세인 지방세 부가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

- 국세인 지방세 부가교육세를 도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연간 도세 6,725억원 세수증가) → 전액 교육재정으로 지원

14. 담배소비세 세율인상으로 주민부담 없는 세수 증대

- 담배소비세 세율인상(460원→510원) 연간 374억원 세수증가

부 록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법령 제·개정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법령 제·개정

민선2기 이후 경기도는 법규정에만 얽매이는 소극적인 정책집행자세를 벗어나 도민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한강수계법」, 「유료도로법」 등 20개가 넘는 법을 새로 만들고 고쳐나가는 적극적인 지방경영에 앞장서 왔다.

- ① 물이용부담금제도 도입 등을 위한 한강수계법 제정
- ② 북부지역 개발 차원에서 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경지역지원법 제정
- ③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
- ④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공업배치법 등 개정
- 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
- ⑥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 미련을 위한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
- ⑦ SOC 부문 민자유치 확대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
- ⑧ BOT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
- ⑨ 난 개발 방지를 위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 ⑩ 광역도시계획권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법 개정
- ⑪ 러브호텔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법시행령 등 개정
- ⑫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도지사 의견 반영을 위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 ⑬ 광릉 숲 보전을 위한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을 제정
- ⑭ 골프장을 통한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위한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을 개정
- ⑮ 도심내LPG충전소 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정
- ⑯ 제2청사에 북부 전담부지사를 두는 지방자치법 개정
- ⑰ 광역전철사업 지방비부담 하향 조정을 위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개정
- ⑱ 주행세 신설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 ⑲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 ⑳ 도세징수교부금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그러나 그 동안 중앙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법’을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을 총 1,200회 이상 방문·설득**하는 고충과 노력이 필요했다.

- ▷ 대통령 경기도 방문시 현안건의 : 5회(도본청 3, 제2청 1, 수해현장 1)
- ▷ 도지사 취임과 연계한 중앙부처 방문 현안사항 논의 : 18개부처 19회
- ▷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장·차관 초청 간담회 : 38회(국회의원 등 34, 중앙부처 4)
- ▷ 타시·도와 공동협의 : 24회(수도권행정 12, 시·도지사협의 11, 개별협의 1)
- ▷ 국회 및 중앙부처 방문협의 : 675회(국회 264, 중앙부처 411)
- ▷ 지역주민 및 기업체, NGO 등과 협의 : 248회
- ▷ 기타 장·차관 방문시 현안건의 등 : 191회(장·차관 방문 17, 기타 174)

이러한 법과 제도의 개혁으로 **경기도 1년 예산과 맞먹는 매년 3조원 이상의 혜택**을 도민에게 드릴 수 있는 결과를 가져 왔다.

① 물이용부담금제도 도입 등을 위한 「한강수계법」 제정

- 2,2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한강 수질개선은 역대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였으나 수익자부담 원칙의 「한강수계법」 제정으로 획기적 해법 마련
 - ※ 한강수계법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 경기도민들만 부담하던 수질개선 비용을 물이용부담금제를 도입하여 서울·인천 등의 물 사용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고, 2005년까지 4조4천억 원 규모의 재원이 확보되어 수질개선 사업에 집중 투자 가능
- ⇒ 수질보호구역 주민에게는 주민지원사업 확대(매년 700억원)로 민원의 근원적 해결, 수도권 주민에게는 1급수의 맑은 물 공급(상·하류 주민 모두가 만족)

② 북부지역 개발 차원에서 「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경지역지원법」 제정

-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나 관련부처와 민간단체의 반대로 '96년이후 3년간 표류하고 있던 접경지역지원법(안)을 경기도가 주도하고 인천, 강원과 협력하여
 - 합리적인 대체법안 마련과 국회의원, 중앙부처, 환경단체 등을 135회 이상 찾아다니며 충분한 이해설득과 끈질긴 노력으로 법안 제정에 성공
- ⇒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등 낙후된 북부지역발전과 남북통일의 기반을 조성하여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음

③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정

-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신용보증확대를 위해 경기도가 주도하여 「신용보증재단법」을 제정('99. 9. 4)
 - 생업적 가내수공업, 유통업 등 소규모 자영업자의 신용보증
※ 2000년말까지 12,601건 4,618억원 보증.
- ⇒ 전국 소상공인 보증의 30%를 경기도에서 취급하는 등 전국최대의 신용 지원

④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공업배치법」 등 개정

- 수출주문이 증가해도 공장을 더 지을 수 없고, 외국인 투자자들마저 다른 나라로 떠나게 하는 수도권 규제,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
※ 공업배치법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유치의 중요성을 대통령님께 직접 건의하는 등 끈질긴 노력으로 외국인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 등 조금씩 개선

▷ 공장설립 제한횟수 완화	▷ 지방세 중과세 인하
▷ 첨단 국내 대기업 증설 허용	▷ 개발부담금 면제·감면
▷ 건축물 용도변경 완화	▷ 농지전용허가제도 개선
▷ 외국인 투자 첨단업종 신·증설 허용	
▷ 공장설립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산업입지분야 규제완화	
▷ 대학·연구소의 실험실 공장 및 창업보육센터 공장등록	
▷ 공장건축총량제 개선(계획입지 제외 등)	

⇒ 2001년에도 시장원리에 입각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연보전권역」폐지, 「북부지역 수도권에서 제외」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개정

-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과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건교부, 건설업자와 타 시·도의 반대가 있었으나 콩나물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부지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설득한 결과
 - 아파트 2,5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 건설시에도 학교용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개정에 성공('99.12월)
- ⇒ 학교설치비용 연 3,500억원 확보하여 매년 초등학교 45개 신설이 가능해 졌고, 학부모님들의 걱정거리였던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

⑥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 마련을 위한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개정

- 토지공사 등 개발업자에게 도로 건설비를 부담케 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를 도입
- 부담금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배분비율을 결정하면서 경기도가 제시한 40(정부) 60(지방)으로 조정되어 2005년까지 1조 600억원의 재원 추가 확보

※ 1조 600억원이면 의왕~과천 고속도로 8개 이상을 더 건설할 수 있는 금액

⑦ SOC 부문 민자유치 확대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

- 유료도로의 관리권을 이관 받은 자에 대해서도 수익률을 인정하여 민간사업자에게도 매각이 가능해졌고
 - 그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도로건설에 곧바로 재투자할 수 있게 되어 민(외)자 유치를 통한 도로 건설이 수월해져 지방재정 부담은 절감시키면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 상습정체구간은 주민들과 상의하여 민자유치로 곧 바로 새로운 도로건설 가능

⑧ BOT 제도 도입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

- 민자유치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BOT 제도 도입과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당정협의 등을 통해 중앙에 건의한 결과

'99. 4. 1일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였음

※ BOT(Build Operate Transfer) : 시설준공후 일정기간 소유한 후 기부채납하는 제도
⇒ SOC 사업의 민자·외자유치 활성화에 기여

9) 난 개발 방지를 위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 수도권 난개발의 원인은 중앙정부가 '94년도 준농림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주택건설업자가 경관을 저해시키고 간선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등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을 건설한데서 기인함
-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 추진

- ▷ 아파트 건설을 위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대상면적을 3만㎡ 이상에서 10만㎡이상으로 제한
- ▷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내 행위제한 기준 마련
- ▷ 준도시,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을 강화
- ▷ 국토이용계획을 입안시 준도시지역의 입안기준을 강화하여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모

⇒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로 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

10) 광역도시계획권 확보를 위한 「도시계획법」 개정

- 교통, 환경 등 시·군 차원이 아닌 넓은 범위의 도시계획이 필요하게 되어 도단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법개정안이 '97년 국회에 제출되었음에도 관련부처와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안이 표류하고 있었으나

- 경기도가 이를 적극 설득하여 건교부장관과 시장·군수에게만 있던 도시계획입안권을 도지사에게도 부여하는 도시계획법 개정 성사('99. 12월)
- ⇒ 시·군마다 따로 하던 도시계획을 도지사가 광역적인 차원에서 수립함으로써 광역행정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과 국토이용 효율을 제고

⑪ 러브호텔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법시행령」 등 개정

- 주거밀집지역(학교 포함) 인근이라 하더라도 상업지역에서는 일반숙박시설(러브호텔 등)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학교 인근에 숙박 시설 신축을 허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음
- 경기도에서는 총리실, 건교부, 교육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고양시가 함께 참석하는 합동회의 개최와 5개 신도시에 대한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관련 지침, 조례, 법령 등에 대한 개정을 통해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

- ▷ 상업지역 중 주거지역(학교 인근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숙박시설(러브호텔 등)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녹지 등 차단시설 설치를 명문화(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 주거 및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하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지정 근거 마련(경기도 도시계획조례 제6조)
- ▷ 상업지역이라도 공원·녹지 또는 지형 지물 등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러브호텔 등)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제외(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

⑫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시 도지사 의견 반영을 위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

- '98. 10월 대통령께 수도권 난개발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시 도지사와 실질적인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제도개선을 특별보고 드리고
 -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공동건의 등 활발한 법령 개정 활동을 전개하여 도지사가 심의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99. 12. 7)
- ⇒ 중앙의 일방적인 택지개발을 도지사가 직접 나서 지역실정에 맞게 도시기반 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개발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

⑬ 광릉 숲 보전을 위한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정

- 「광릉 숲」은 530여년간 천연상태로 보전된 한국최고의 산림생물의 보고 였으나 '87년 광릉수목원 개장이후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급격히 파괴
-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종합대책을 확정하여 추진하였으나 지역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에 봉착
- 광릉 숲 보전을 위해 경기도가 나서서 환경NGO 및 지역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보전방안 마련

- ▷ 영향권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완충지역)으로 지정
- ▷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권한 회수
- ▷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주민지원 사업기금」으로 지원

⇒ 경기도가 주도하여 2001. 2. 28일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정

14 **골프장을 통한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체육시설이용에관한법
률」 개정

- 골프장을 통한 외자유치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골프
장내 숙박시설의 제한적으로 허용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지역 확대를 중앙에 건의
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곳에는 5층 이하 숙박시설 허용
⇒ 허용범위를 추가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 지속 추진계획

15 **도심내 LPG 충전소 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특별시행령」 개정

- 대구 지하철 가스화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부천 LPG 충전소 화
재사고와 같은 도심내 LPG 시설로 인한 대규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심내 LPG 충전소를 도심외곽으로 이전 추진(2005년까지
3단계로 추진)
- 이를 위해 도심내 기존 LPG 충전소의 이전과 개발제한구역내 입
지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중앙에 계속 건의한 결과
⇒ 2000. 7. 1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
정되어 도심내 기존 충전소의 G·B내 이전이 제한적으로 허용됨

16 **제2청사에 복부 전담부지사를 두는 「지방자치법」** 개정

- '99. 4월 대통령님의 경기도 방문시 낙후된 북부지역발전을 위해
제2청사 설치를 건의한 결과 구조조정의 여파로 모든 행정조직이
인력과 시설을 줄이는 상황에서도 전담부지사가 상주하는 북부지
청 설치를 관련부처에 지시
-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순조롭게 추진되다가

법제처와 이견으로 대통령님 약속사항 이행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

- 관련부처를 방문, 적극적인 설명과 대안을 제시하고 국회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관계법령을 통과시키고
 - 2000. 2. 25일 대통령님 내외분을 모시고 개청 행사를 성대히 개최
- ⇒ 북부주민이 5시간 이상 걸려 수원까지 오는 민원불편 완전 해소와 경기북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 수립과 현안해결 추진 가능

17 광역전철사업 지방비부담 하향조정을 위한 「대광법시행령」 개정

- 지방비 부담이 과중(44%)하여 사실상 중단상태에 있던 수도권광역전철사업 (5개 노선 146Km, 2008년까지 4조 8,554억원 투자)이 지방비 부담의 하향조정을 대통령님께 건의하고 건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한 결과
 - ※ 양주군의 경우 郡 전체예산('99년 1,297억원) 보다 많은 1,414억원 부담
 - 지방비 부담율을 2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재경부의 반대를 설득하는 등 관련부처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관련법령이 2000. 4. 13일 개정됨
 - ※ 대광법시행령 :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 ⇒ 우리도 부담금이 7,260억원 감소하였고, 경원·경의·중앙·분당·수인선 광역 전철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앞 당겨졌음

※ 7,260억원은 북부지역 시·군마다 1만명 규모의 체육관을 하나씩 지을 수 있는 금액이며, 주민 1인당 35만 원의 혜택을 드린 셈

18 주행세 신설 및 담배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 '98년 한·미자동차 협상결과 자동차세 감면으로 지역발전에 쓰

여지는 지방재원의 대폭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안으로

- 국세로 징수되던 교통세의 3.2%를 재원으로 하는 주행세 신설을 추진하여 정부의 수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
- 이후 새차와 현차 차등과세에 따른 감소분 재원보전으로 주행세율을 3.2%에서 11.5%로 인상 조정함으로써 주민부담 없이 연간 874억원 세수가 증가

※ 874억원은 행주대교 1개소를 더 건설하고도 200억 정도가 남는 금액임

- 또한 담배소비세 세율인상(460원→510원) 연간 374억원 세수 증가

19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 16개 시·도의 공동건의와 행정자치부의 지원으로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을 추진해 온 결과 '99. 12. 28일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0년도부터 '99년 대비 35.5%인 1,093억원을 추가로 교부 받게 되었음

※ 1,093억원은 오산시나 동두천시의 1년 예산과 맞먹는 규모임

20 도세징수교부금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세법 및 지방재정법」 개정

- 종전에는 도세징수교부금을 교부하면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는 징수액의 50%를, 기타시·군에는 30%를 교부하여 시·군간 재정력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지역간 불균형 발

전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98. 10. 16일 대통령님 경기도 방문시 건의하여 관련법이 개정되어 시·군간 재정격차 완화와 지역균형개발 도모